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 한인뉴스

2 2019

VOL. 272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http://www.innekorean.or.id)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 TRANSFER FASTER

go 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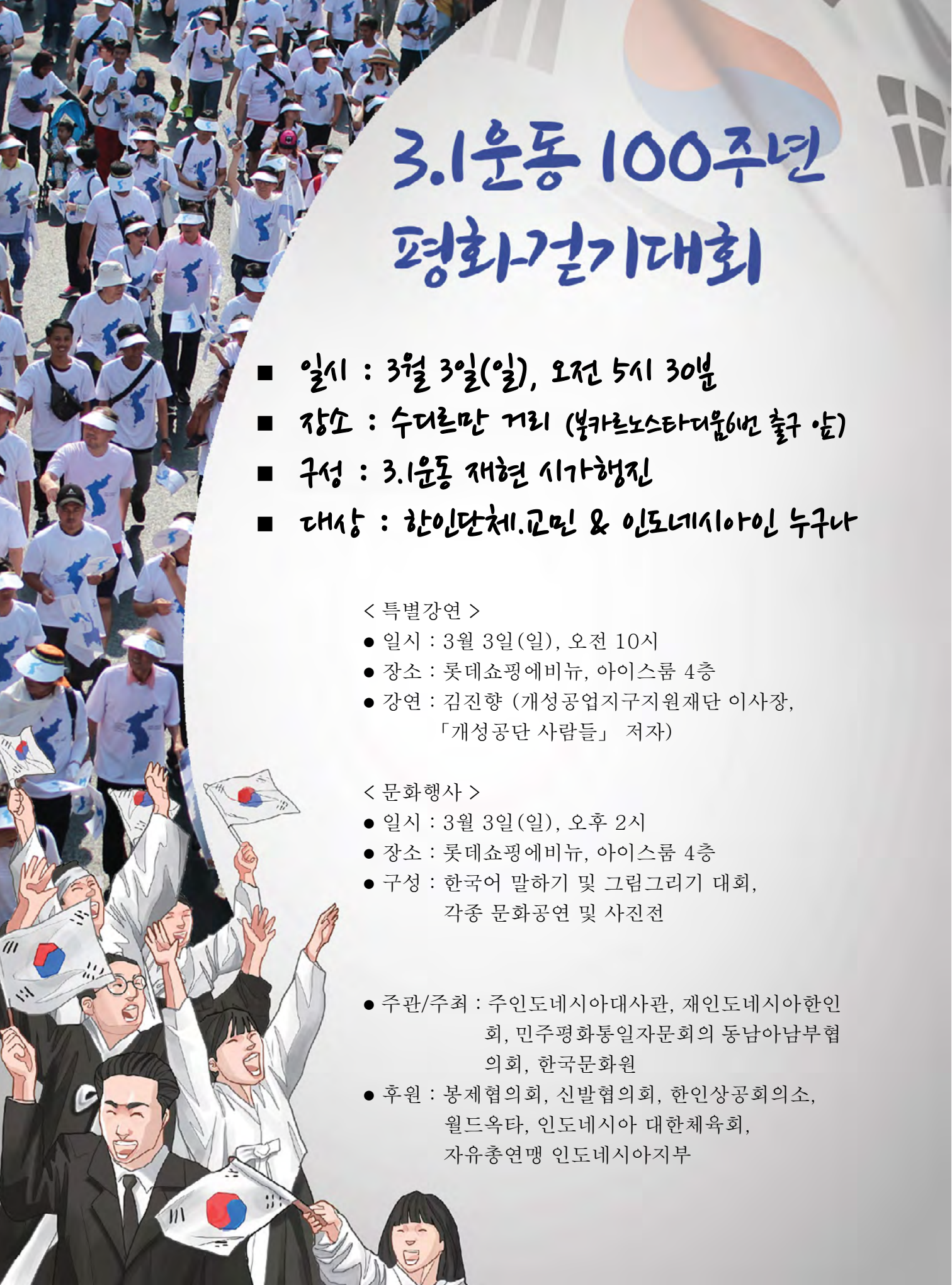
한결 수월해진 이동과 간편해진  
수하물 처리는 여행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제2터미널만의 차원이 다른  
환승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KOREAN AIR** SKYTEAM

GoKorean.KoreanAir.com



자카르타 ↔ 서울 매일 운항  
덴파사르(발리) ↔ 서울 매일 운항



# 3.1운동 100주년 평화기원대회

- 일시 : 3월 3일(일), 오전 5시 30분
- 장소 : 수더르만 거리 (봉카르노스타디움6번 출구 앞)
- 구성 : 3.1운동 재현 시가행진
- 대상 : 한인단체.교민 & 인도네시아인 누구나

## < 특별강연 >

- 일시 : 3월 3일(일), 오전 10시
- 장소 : 롯데쇼핑에비뉴, 아이스룸 4층
- 강연 :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개성공단 사람들」 저자)

## < 문화행사 >

- 일시 : 3월 3일(일), 오후 2시
- 장소 : 롯데쇼핑에비뉴, 아이스룸 4층
- 구성 : 한국어 말하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각종 문화공연 및 사진전
- 주관/주최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한국문화원
- 후원 : 봉제협의회, 신발협의회, 한인상공회의소, 월드옥타, 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Pioneering Exploration and Production of  
Oil and Gas in West Madura Offshore  
Since 1981*



**대한민국 해외자원개발의 선구자!**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유전개발 업체로  
인도네시아 마두라광구 탐사,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KODECO ENERGY**

Talavera Office Park 10<sup>th</sup> fl. Jl. Letjen TB Simatupang No. 22-26  
Jakarta 12430 T +62 21 2765 1559 E admin@kodeco.co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 양영연  
편집인 : 전민식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편집위원 : 신돈철, 최인실, 황미리, 황윤홍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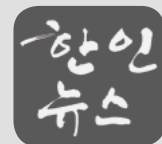
한인뉴스발행인 양영연 배상

가끔 어떤 모임에서 우연히 원고를 청탁하고 싶은,  
알려지지 않은 그 분야의 새로운 인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콘텐츠를 엮는 사람인 저는 그 순간이 흥분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글로 표현한다는 것에 대한 위축과 약속한 날짜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끝내 기고자로서의 탄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결국은 펜을 드는 소수의 반복적인 기고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일은 월간지를 만드는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 건의 뉴스를 보도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분량과 순서,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데스크를 원망하며  
팩트조차 진실을 위해 쓰여 지지 않았을 때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들은 도대체? 비판을 하다가도  
어쩌면 선택지가 그것 밖에 없었을 거라는  
동종업자로서의 이해가 되는 것은 세월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 차례

- 8 편집위원 칼럼 - 현지 직원 고용계약서 작성시  
유의 사항 <황윤홍>
- 10 신성철 칼럼 -3.1운동 100주년, 자카르타 그리고 나
- 12 이해창 경제칼럼 -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
- 16 건강칼럼 - '동의보감'의 지혜로 건강한 생활영위
- 22 배동선 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16
- 26 월간 뉴스브리핑 <자카르타 경제신문>
- 30 그는 누구? - 한인회 박재한 수석부회장
- 34 1월의 헤드라인으로 본 인도네시아 <편집부>
- 36 자카르타 맛집 탐방 - Bistecca <주윤지>
- 38 행복 에세이 <엄재석>
- 44 나바사 <민선희>
- 46 유적에 핀 꽃 <문인기>
- 47 JIKS 소식 <신재우>
- 48 기업시민, 무엇을 할 것인가? 2부 <이순형>
- 52 더 넓은 세계로 <차정민>
- 54 인도네시아 회사법(270) <이승민>
- 56 좋은 글 <윤회진>
- 60 지구의 뜨거운 숨결과 맥박 <한인니문화연구원>
- 64 신간소개 -서미숙 <적도의 노래>
- 67 Pancoran 사람들 <편집부>
- 71 생활정보

## 한인사회 이모저모

- 14 2019 신년인사회
- 20 MAJU SATU LANGKAH
- 21 '경영이 예술이다' 서예전
- 33 제19회 한인미협 정기전
- 40 '우리가 꽃이었구나'
- 66 태권도할 때 즐거워요!



## 복지갑 시리즈(the big fat pouch)

일러스트레이션: 황혜림

통통하게 살이오른 이 주머니는 작가가 공을 들이는 모든것을 한 데 담아 놓고 싶은 공간입니다. 원하는 생명을 키우고 상상속의 이야기를 한 데 가두어 놓기도 하며 소소한 일상과 행복한 기운을 전하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IG:@dqdoodle]



## 현지 직원 고용계약서 작성시 유의 사항

글: 편집위원 황윤홍

고용계약서 작성은 작성 언어, 계약 당사자, 채용지와 근무지, 채용 자격을 취업규칙 및 노동협약에 의거하여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몇가지 요약한다.

직원 고용계약서는 회사측과 직원의 최초 계약이다. 직원의 취업 조건, 의무와 권리 그리고 회사측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철저히 관리해야만 한다. 사내에 취업규칙과 노동협약이 원만히 잘 작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고용계약서에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고 상호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 계약 언어

고용계약서 작성은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도록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다. 회사측이 영어를 소통 언어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2개 언어로 병기 하

여도 무방하나 언어간 해석 차이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어가 유효 언어가 되고 동 사항은 계약서 상에 명기해야 한다.

### 계약 당사자

고용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는 물론 회사명, 정확한 회사 주소 그리고 채용 직원의 이름, 주민증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증 번호 등도 함께 기재 할 것을 권유한다. 혹시 채용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위 상세 사항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된다.

### 채용 장소와 근무 장소

계약서에 채용 장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직원과 고용 관계 종료 후 지불 의무인 손실보상금 (uang ganti kerugian) 조건에 '채용 장소로



귀환 비용' 이 있는데 이 교통비는 가족도 함께 포함 되어 있어 이의 지급에 대해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대부분, 채용과 고용 장소가 같아 별 문제는 발생 되지 않지만, 지방에 지점과 지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많이 발생하는 분쟁 사항이다.

만약 인사담당자가 지방으로 출장을 나가 구인 활동을 하는 경우 서로 다른 해석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방에서 고용계약서를 서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채용지는 본사로 한다] 혹은 [채용지 : 자카르타] 라는 문구를 고용계약서에 확실히 명기하는 것이 좋다.



## 직원 고용 형태

기한 한정 고용직 (contract) 과 무기한 고용직 (permanent) 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시용기간을 설정할 경우 필히 고용계약서 상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계약직 경우, 계약기간, 계약 종료 조건, 연장 혹은 갱신시 수속 절차를 명기하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시켜 줘야 한다. 그리고 계약 종료에 따른 고용 관계 종료시 고용주가 퇴직수당 (uang pesangon) 과 근로공로금 (uang penghargaan masa kerja) 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한다.

현 법규에는 고용주가 상기 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고용계약서에도 이를 재 명기해둘 것을 권유하고 있다.

## 취업규칙 (Peraturan Perusahaan) 과 노동협약 (Perjanjian Kerja Bersama)

회사 전체가 결정하여 따르는 사항을 고용계약서에 일일이 명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노동협약 또는 현행 법규를 따른다' 를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한다.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노동협약에 명기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용주측에서 채용직원에게 다시 알려 줘야 할 사항이 있다면 취업규칙이나 노동협약에 쓰여진대로 똑같은 문구로 계약서에 명기해줘야 추후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경우 작성 의무가 있다. 노동협약의 경우, 노조가 요구하는 경우 작성하게 되는데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끝으로 직원 채용을 위하여 1,2차 인터뷰를 실시하게 되는데 회사측은 취업을 위해 찾아 준 지원자에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심층 인터뷰를 위해 전문성과 경력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다운 질문 사항을 미리 준비해 두고 친절하게 지원자 능력을 파악할 것을 권유한다.

누구에게나 첫인상은 서로에게 깊게 남는다.

지원자가 더 나은 직장과 삶을 찾아 도전하는 외국기업과의 인터뷰는 설레고 긴장되어 아마도 어제 밤잠을 설쳤을 것이다. 회사측은 지원자를 취조하는 자세보다 우리 회사를 믿고 찾아와 준 지원자에 대한 회사의 좋은 이미지 홍보와 미래를 프레젠테이션 해주는 시간이 된다면 비록 함께 일하지 못하더라도 짧은 인터뷰 시간은 지원자와 그 동료 가족들에게 좋은 인상과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 누구에게나 첫인상은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 않던가..?

## 3.1운동 100주년, 자카르타 그리고 나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1920~1940년대. 조선인들은 이미 인도네시아로 와 항일독립투쟁을 시도했다. 일본경찰에 쫓기는 망명자로 또는 일본군 소속 포로감시원이나 농업 전문직 군속으로 온 조선인들이다. 그들은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강제로 인도네시아로 오게 됐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도 기적이라 부를 만한 힘든 과정을 통해 일부만 돌아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낯선 땅에서 죽어갔고 아주 소수만 정착해 후손을 남겼다. 당시 인도네시아인들은 그들을 일본인이라 불렀고 조선인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후 100년이 지난 2019년 1월. 3만여명의 한국인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회사 또는 단체가 파견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인도네시아행을 결정했다. 현지 주요도시엔 한인회가 생겼고, 한국을 모르는 인도네시아인은 거의 없을 듯하다. 인도네시아인들은 K-pop과 K-pop 가수를 좋아하고 한국드라마를 보고 한국음식을 즐긴다. 이제 우리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

일본 식민지 하의 인도네시아는 어땠을까? 인도네시아 대문호 뿌라무디야 아난다 뚜르는 <작가의 망명>이라는 대담집에서, “일본군이 자바에 상륙하고 3일만에 거의 모든 일본군인이 자바 여성을 강간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얼굴에 석탄가루를 묻혀 군인들이 여성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하게 했죠. 나이 든 여성들 심지어 할머니들까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또 “1943년 일본군이 수세에 몰리자 강제노동자(로무샤 Romusha) 체제를 도입했죠. 인도네시아 안팎의 요새 건축에 동원된 농민 70만명 중 30만명이 죽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도네시아는 일본 침략으로 네덜란드 식민지배에서 벗어났고,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함에 따라 일본 식민지배에서 벗어났다. 1945년 네덜란드가 연합군의 일원으로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왔을 때 족자카르타 술탄 하명

꾸부워노 9세 같은 민족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인들도 적극적으로 독립전쟁을 했고, 태평양전쟁 후 인도네시아에 남은 일본군과 양철성 같은 일본군속 소속 일부 조선인들도 네덜란드에 대항하는 전투에 참여했다. 더불어 인도네시아는 인도와 미국 등 우방국의 외교적 지원을 통해 네덜란드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었다. 뿌라무디야는 독립 후에도 미국과 서방국가, 중국, 소련, 일본 등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카르노 정권의 몰락과 수하르토 정권의 등장과 유지 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왔다고 <작가의 망명>에서 지적했다.

한반도는 일본이 몰려난 후 미국과 소련의 대결로 인한 신탁통치와 분단을 겪었고,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김일성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을 겪는다. 한국전쟁은 한민족간 내전으로 시작돼 미국, 중국, 소련 등의 참전으로 국제전으로 확대된다. ‘인도네시아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평가받는 목타르 루비스는 유엔중군기자로 한국전에 참가한 후 한국전 중군기(Catatan Perang Korea)를 발표했다. 그는 기관총 탄알이 복부를 관통한 여성을 목격한 후 “이 모두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무슨 소용? 인간성의 말살이었다. 더욱이 이 모든 것이 남과 북의 적대관계 때문이 아니라, 한반도 밖에서 도래한 외세끼리의 충돌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한민족 스스로는 남과 북을 갈라놓은 38선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잘 알지 못했다”라고 이 책에 기록했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지정학적 위치와 천연자원 때문에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국가들이다. 목타르 루비스는 자신의 소설 『사랑과 죽음』(1977) 속 인물 사델리(Sadeli)를 통해 인도네시아 독립투쟁이 결코 인도네시아 민족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웃국가나 민족을 설득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지도자의 리더십에 희생정신, 포용력, 청렴성 등만이 아니라 외국어와 지적 능력을 통한 외교

전략을 구사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뿌라무디아 역시 “오늘날 세계 어떤 나라도 외부의 개입을 피할 수 없고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기란 더욱 어려워졌다”라며 강대국의 간섭을 막기 위해 약소국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왜 독립국가를 원하나?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목타르 루비스는 자신의 소설 『사랑과 죽음』(1977) 속 인물 조한을 통해 독립투쟁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리는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권리를 가진 민족으로 살기 원하므로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우리 일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며, 다른 민족의 노예가 아닌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민족과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민족으로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 독립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영토에서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2018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총 4차례나 저공비행으로 대한민국 해군 함정을 위협했다. 윤우 한국항공대학교 초빙교수는 최근 한국 언론에 쓴 칼럼을 통해 지금까지 일본 정권은 북한의 위협을 군사력 증강과 국내 보수 정치세력의 결집용 명분으로 적절히 이용해왔으며, 전쟁이 가능한 국가, 공격이 가능한 군대로 전환하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일본으로서는 동북아 긴장 상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썼다. 또 그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수록 일본은 새로운 안보위협을 만들어내기 위해 분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우 교수는 이런 일본의 입장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이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공유·공감함으로써 그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진심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 언론에 낸 칼럼에서 20세기 들어 한국인이 역사적인 능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1919년 3.1운동과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진행되는 남-북-미 회담을 예로 들었다. 박찬승 교수에 따르면, 당시 세계사적 대전환기였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유럽의 약소국들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유럽 외 다른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해당될 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었지만 조선의 민족운동가들은 ‘이것이 실오라기 같은 것일지라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3.1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3.1운동은 전환점이 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무력독립투쟁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우리 앞에는 남북분단, 일본 도발, 중국 팽창, 미국 패권 등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쉽지 않은 과제들이 놓여있다. 한반도에서 청일전쟁, 일제침략, 한국전쟁을 겪는 동안 몸과 마음과 재산을 바쳐 싸운 조상들 덕분에 지금 우리는 평화롭게 한반도와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살고 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도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독립국가를 유지하며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야 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1절 첫 번째 소절 가사에는 한반도에서 영원히 평화롭게 살고 싶은 한국인의 소망이 담겨있다. 소망을 실현하는 것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 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 <인도네시아에서 조선인의 독립운동>

1920년 9월 조선인 장윤환 바따비아(옛 자카르타)에 옵  
1942년 9월 군속으로 조선 청년 1,400여명이 자바에 옵  
1944년 12월 <고려독립청년당> 결성  
1945년 1월 1차 중부자바 주 암바라와 지역의 거사  
1945년 1월 2차 자카르타 탄중뿌리옥 거사 좌절  
1945년 9월 조선인들 자카르타에서

<재자바조선인민회> 설립

자료출처 : 인도네시아 한인개척사 적도에 뿌리내린

한국인의 혼/김문환 저/2013

## 신제국주의의 재림, 글로벌기업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

글: 이해창 (신한은행 전무)

2019년 새해 시작부터 글로벌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이 매일 교차하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트럼프 취임 이후 촉발된 양국의 관세마찰은 한치의 양보없이 흘러가는 모양새다. 세계는 제국주의의 결말이었던 세계대전과 이후 도래한 냉전의 시대를 종식하였으나, 다시 강대국들은 무역전쟁을 치르며 제2의 제국주의 시대를 고하는듯 하다.

과거 제국주의 또한 자본주의가 잉태한 산물이었다. 자본주의의 문제는 충분히 소비되지 못하고 잉여생산물이 남아 경기침체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잉여생산물은 공장 가동을 어렵게 하고 자본가를 압박하여 노동자의 해고로 이어지며, 결국 실직자들은 늘고 소비는 줄어들어 더 깊은 침체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자본가들의 저축이었다. 자본주의는 어쩔수 없이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 세끼만을 먹는 인간의 소비에는 한계가 있으며 때문에 부자들은 잉여생산물들을 저축할 수 밖에 없었다.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금융기관에 저축한 돈은 개인 또는 기업들의 대출자금으로 쓰이며 이 대출자금은 다시 생산 활동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등 저축이 경제 선순환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불황시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저축만을 늘린다면 경제 전체적으

로는 수요가 부족해져 결국 불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데 이는 1930년대 세계대공황 때에 역시 증명된 바 있다.

그렇다면, 잉여생산이 초래한 장기불황의 해법은 무엇이였을까? 바로 수출이었다. 산업혁명으로 잉여생산물을 많이 만들어냈던 서구유럽은 그래서 식민지가 필요했다. 그리고 이는 곧 제국주의의 서막이었다. 그렇게 강대국들은 각자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였고 이러한 각축전은 세를 규합하다 결국 세계대전이란 대재앙을 초래하고 말았다.

오늘날은 어떨까? 국가주도의 제국주의 시대는 갔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식민지 쟁탈전은 또 다시 진행형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무역적자를 이유로 이러한 쟁탈전에서 자국이 항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애플,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등 글로벌기업들이 미국에 세금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다.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은 법인세가 가장 낮은 나라 즉, Tax Haven(조세피난처)에 있는 자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현행 미국 세법에 따르면 미국기업이 해외기업과 합병한 후 본사를 해외로 옮기면 35%에 이르는 미국 법인세 대신 이전한 국가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때문에 많은 미국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 등의 국가로 본사를 이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자기가 놓은 덫에 걸려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은 1996년 자국의 초과 생산물 해결을 위해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장벽을 낮추는 신국제질서인 WTO(세계 무역기구)의 출범을 주도하였다. 미국정부는 관세를 낮춘 신흥국을 상대로 미국 기업들이 엄청난 무역 흑자를 안겨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된다. 기업들이 생산과 소비를 분리하기 시작한 탓이다. 인건비가 비싼 미국 대신 저렴한 다른 국가에서 생산을 시작하게 되었고 관세장벽을 허물었던 미국은 다시 이 물건들을 수입하여 쓰게 되었다. 결국 WTO 체제 후 미국은 일자리는 줄었고 세수는 더 줄어 들게 된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지적하며 정치 프레임화 시켰다. 일자리를 빼앗긴 백인노동자들에게 무역장벽을 높이고 공장을 되돌려주겠다 하며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들을 EU와 공동으로 압박했다. 그리고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낮추게 되며 이러한 미국의 법인세 인하는 이제 전세계로 확산 되는 중이다.

그렇다면 WTO체제 하에서의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 바로 미국도 EU도 아닌 글로벌기업이다.

국가가 부를 주도하는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다. 주인공은 글로벌기업이며 이들은 벌써부터 시장 개척이라는 식민지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더 법인세가 낮은 나라들로 본사를 옮겨 다닐 것이다. 그리고 미국을 시작으로 각국이 세금 인하경쟁에 뛰어들 만큼 기업제국주의는 더욱 부흥할 것이다. 결국 승자는 기업인 셈이다. 이렇듯 19세기 국가주도 제국주의와 21세기 기업주도 제국주의는 경영 영토를 늘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과거 제국주의의 시발점은 17세기 설립된 동인도회사라 할 수 있다. 해상무역이 주업이었던 회사는 끝을 모를 정도로 거대해지며 독점 및 각종 특허권은 물론 외교, 그리고 선전포고까지 정부를 대신해 광범위한 권리를 부여 받게 된다. 무소불위의 권력과 함께 통제에서 벗어난 회사는 전쟁, 인신매매, 마약밀거래 까지 서슴치 않았으며 이러한 만행들은 결국 중국의 아편전쟁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의 시발점이 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리고 승.패는 이러한 역사를 반면교사 삼는 이와 주마간산 하는자로 갈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아야만 하는 이유일 것이다.



## 2019 신년인사회

2019년 1월 4일, 대사관 강당에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대사 김창범)은 대사관 직원, 한인단체 한인 주요인사 및 각계 한인동포가 모인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표창장전수식으로 이어진 이날, 평화통일 기반구축 유공 목련장전수에 전민식 민주평통상임위원을 비롯하여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45명에게 표창 및 상장이 수여되었다.

김창범대사는 “지난 해 문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의 상호 국민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발전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쌍방교역량이 2017년 대비 12.6% 상승하여 200억을 돌파하였다. 이를 위해 애쓴 기업과 한인동포들에게 감사하다” 고 말하고 지난 해 여러 행사에서 한인사회의 헌신적 도움에 또한 감사를 전했다. 또한 “2019년은 아세안과 한국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이고 연말에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금년 한해 많은 변화와 성취를 이루는 의미있는 한해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자연재해와 재난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최우선 과제인 동포들의 안전과 보다 나은 영사서비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채 주아세안대표부 대사는 대사관에서의 이전을 알리며 아세안 대표부의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양영연 한인회장은 “여러 사람과 뜻을 함께하며 전통과 주어진 현실의 조건 속에 목표를 위해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 속의 사람들과 정서와 이해를 충분히 담아내야 하기에 인정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며 한인 모두를 아우르는 한인회가 되기 위해 올 한해도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식이 끝나고 참석자들은 대사관에서 준비한 떡국을 먹고 덕담을 나누었다.



## 2018년도 연말 상장전수

2018년 평화통일 기반구축 유공(목련장) : 민주평통 상임위원 전민석

2018년 평화통일 기반구축 유공(의장표창) :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이지완

제12회 세계한인의날 (대통령 표창)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신만기

제12회 세계한인의날 (국무총리 표창) : 자카르타밥퍼해피센터 최원금

제55회 무역의날 (산업부장관 표창) : 코리너스 대표이사 최민석

제55회 무역의날 (산업부장관 표창) : 코스맥스 대표이사 정민경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시 대상 : 문인기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글짓기(초등) 우수상 : 김재이

대사 표창 : 민주평통동남아남부협의회 하영빈,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설혜선,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 김재훈, 월드OKTA 인도네시아 이창균, 재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 이종현, 재인니태권도협회 박주상, 재인니한인문예총 채영애, KOWIN 박창희, 한인청년회 남창우, 한인니문화연구원 채인숙, 재인도네시아한인회 김희익, PT. HILON FELT 전무이사 박종호, 땅그랑(반튼)한인회 김명하, PT. LSP INDONESIA 임성필, 족자카르타한인회 박병엽, PT. INDO AMARA FURNI 박호섭, 바탐한인회 최인호, 반둥한인회 남장희, 한인선교사협의회 류제국, 코윈재인니한글학교 김석주, 수라바야한글학교 권지영, 반둥한글학교 배창호, 발리한글학교 허성순, 스마랑한글학교 정민숙, 바탐한글학교 박은혜, 족자한글학교 배혜진, 열린한글학교 김용구, 즈빠라한글학교 오재호, 중부자바스마랑한글학교 강민지, 인도네시아외식업 협의회 정재익, PT. INDO LOTTE MAKMUR 유승현, CGV 인도네시아 김형동, 한국철도시설공단 홍석진, 한국수자원공사 신희정, PT. TIMUR Satria PERKASA 이기홍, PT.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sia 이동우, 한국투자증권 인도네시아법인 남경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남택홍

총 46명





## '동의보감'의 지혜로 건강한 생활영위

우리 몸의 병은 예고없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피곤하고 기침을 하거나 얼굴이 누렇게 뜨고 설사를 하거나 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핑 도는 것처럼 우리 몸은 다양한 증상들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려줍니다. 따라서 자기 몸은 자기가 가장 잘 압니다. 그런데 당장 불편하지 않다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같은 증상에 계속 시달리다가 만성질환이 되거나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병은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 방법입니다.

“동의보감”에는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법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과 양생법도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에 맞게 “신 동의보감 건강혁명”을 외치고 있어 이들 중 일부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 <탈모>

1. 탈모의 원인은 열성체질, 스트레스, 과로, 더러움, 강한 샴푸 등에서 옵니다.
2. 충분한 휴식을 하고, 화를 내지 말고, 탈모예방 샴푸로 깨끗이 머리를 감습니다.
3. 탈모에 좋은 식품은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은 영양공급과 혈액순환을 동시에 해결하고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 <피부 건조증>

1. 촉촉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이 중요합니다. 다만 자외선 차단제는 지속시간이 3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2. 샤워할 때는 순한 비누와 부드러운 수건을 사용합니다.
3. 절대로 때는 밀지 않도록 합니다.
4. 목욕 후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줍니다.

### <눈의 피로>

1. 눈이 침침하거나, 뿌옇게 보이거나, 자주 피곤하면 오장육부의 기운이 약해져 몸을 보해야 합니다.
2. 평소에 눈에 좋은 음식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3. TV 시청이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눈이 나빠집니다.
4. 장시간 컴퓨터로 업무를 볼 때는 30분 단위로 일어서서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5. 눈에는 전복껍질로 만든 “석결명차”가 좋습니다.

### <알레르기성 비염>

1. 알레르기성 비염은 완치가 어렵고 재발이 잦습니다.
2. 코와 폐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 세균이 코로 침입하면 콧물, 코막힘, 재치기 등 알레르기성 비염이 됩니다.
3. 침구류나 카펫을 자주 삶아 햇빛에 말리고, 털 소재의 소파는 가죽 등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4. 한국 방문 시는 미세먼지를 조심하고 외출 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5. 폐에 좋은 도라지나 오미자를 이용한 차나 음식이 좋습니다.
6. 목련으로 만든 “신이차”도 알레르기성 비염에 좋습니다.

### <구취>

1. 위의 기능이 떨어져 위에서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부패해서 냄새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2. 혀의 심한 백태, 잇몸질환, 구강건조증도 구취를 유발합니다.



3.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양치질이 중요합니다.
4. 하루에 세 번 이상 식사후 3분내 양치질을 하면서 반드시 혀도 닦아주고 치실로 이빨사이의 찌꺼기를 제거해 줍니다.
5. 육류섭취를 줄이고 양배추, 당근과 같은 섬유질이 많은 채소섭취를 많이 합니다.
6. 입냄새에는 박하사탕보다는 “박하차”가 좋습니다.

### <역류성 식도염>

1. 역류성 식도염은 비만, 흡연, 음주, 과식, 취침 전 식사나 기름진 음식이 원인이다.
2. 목에 뭔가 걸린듯하여 헛기침을 하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3. 위장의 내용물이 식도로 거꾸로 올라와 식도가 손상받는 위장질환이다.
4. 지나치게 차거나 뜨거운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은 피한다.
5. 식사량을 줄이고 자기전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6. 달리기는 삼가고 사이클 운동이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완화에 좋다.
7. 차로서는 꿀껌질을 말린 진피와 모과차가 좋다.

### <요통>

1.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직립보행을 한다. 따라서 인체의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는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어 다치기도 쉽고 노화도 빨리 온다.
2. 요통은 허리 부위의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되거나 요추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3. 허리가 아픈 것은 주로 운동부족이 많습니다.
4. 허리에 부담을 주는 정도는 앉은 자세(140) > 일어난 자세(100) > 똑바로 누운 자세 (25) 순입니다.
5. 높낮이 책상을 이용해 선 자세로도 일하면 척추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6.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앉을 때는 허리가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꼴꼴이 세우고 가슴을 내밀니다. 서 있을 때는 아랫배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짝다리를 짚지 않도록 합니다.
7.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편 상태로 무릎을 구부리고 들어야 합니다.
8. 요통을 치료하고 허리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엎드린 상태에서 양팔과 다리를 모두 들어 줍니다.
9. 복근운동을 할 때는 바닥에 허리를 붙이고 등만 떨어지도록 합니다.

### <복통>

1. 술을 마신 다음날 꼭 설사를 하거나 식사후 바로 화장실에 가거나 배가 아픈 증상
2. 대장병을 다스리려면 먼저 간을 다스려야 한다.
3. 기름진 음식, 술, 카페인, 유제품 등 위장관을 자극시키는 음식을 삼간다.
4.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 <간 질환>

1. 간에 병이 생기면 쉽게 피로를 느껴 눕고 싶고, 입맛이 없어지고, 간이 있는 오른쪽 윗배가 아파옵니다.
2. 가장 흔한 간 질환은 지방간이며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낀 상태입니다.
3. 간에 지방이 쌓이는 이유는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아 처리해야할 지방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대부분 “술”이 원인입니다.
4. 음주와 출처를 알 수 없는 건강식품의 장기 복용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간에 큰 무리를 줍니다.
5. 간은 회복능력이 뛰어난 장기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가만히 쉬기만 하면 바로 회복되는 것이 간입니다.
6. 술을 많이 마신다면 1주일 연속으로 마시지 말고 간이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간에 좋은 대표적인 차는 “헛개차”입니다.

### < 변비 >

1. 대변이 딱딱하고, 배변 후 시원하지 않고, 배가 똥똥하면서 배변이 힘들거나 대변 횟수가 1주일에 3회 미만이면 변비라고 합니다.
2. 변비는 대장에 수분이 부족하여 변이 단단해지고 배출하기 어려워집니다.
3. 노인이나 다이어트 중인 여성은 몸의 진액이 적어 입이 마르고 눈도 건조해 지며 대변도 단단해 집니다.
4. 진액을 보충해 주는 견과류와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5. “다시마”는 뭉친 변을 내려주며 살을 빼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해 줍니다. 국을 끓이거나 무쳐 먹어도 좋습니다.

### < 치질 >

1. 치질은 오랫동안 서있는 자세나 잘못된 배변습관, 변비, 임신 등이 원인입니다.
2. 화장실에는 5분 이상 머물지 않도록 하고, 책이나 신문 등을 비치하지 맙시다.
3.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수분과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4. 하루 3번 자기 전이나 배변 후 온수에 좌욕을 한다. 37도~38도 온도의 물에 5~10 분가량 엉덩이를 담그고 괄약근을 조였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한다. 좌욕 후에는 선풍기나 드라이기로 잘 건조시켜 주어야 합니다.

### < 정력 감퇴 >

1. 정력은 “성 기능”을 뜻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심신의 활동력”을 뜻 합니다.
2. 무절제한 생활습관이나 운동 부족, 제 때에 해소하지 못한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3. 정력을 강화시키려면 절도있게 음식 먹기, 적당히 술 마시기, 단백질이나 잡곡 위주의 식사법이나 굴, 검은 콩, 장어와 부추가 최고의 정력 식품입니다.
4. 목욕탕에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것은 심장에 무리만 갈 뿐 정력에 좋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 < 골다공증 >

1. 골다공증 상태가 되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하기 쉬워 조심해야 합니다. 노인들은 골절이 되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2. 골다공증은 사람들의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많아졌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근육이 줄면 뼈도 약해집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튼튼한 뼈를 위해서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칼슘을 비롯한 각종 무기질, 단백질, 비타민 D가 포함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4. 주의할 음식은 “소금”과 “고기”입니다. 고기는 인이나 황 같은 산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액을 산성화 시키므로 이를 중화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 나오게 됩니다.
5. 우유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다수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6. 무엇보다 가벼운 조깅, 에어로빅, 수영, 등산, 자전거 타기가 뼈에 좋습니다.
7. 좋은 음식은 건어물, 콩을 이용한 음식, 해조류, 등푸른 생선, 녹색채소가 좋습니다.

### < 어깨 통증 >

1. 어깨를 많이 쓰거나 나이가 들면 힘줄에 점점 상처가 나고 찢어지면서 통증이 찾아옵니다. 심하면 밤에 잠을 못자기도 하고, 팔을 들어 올릴 수도 없고, 뒤로 젖히기도 힘들어 집니다.
2. 남성은 무리한 운동 때문에, 여성은 빨래나 설거지 등 집안일 때문에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깨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입니다.
3. 오십견 등 어깨 예방은 “오금희 체조”가 최고입니다. 오금희 체조는 호랑이, 곰, 원숭이, 사슴, 새의 다섯 가지 동물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해 만든 옛 중국 명사가 개발한 건강체조입니다.
4. 오금희 체조방법은
  - 1) 의자에 앉거나 선 채로 양팔을 벌리고 팔꿈치와 손목을 쭉 펴니다.
  - 2) 가볍게 주먹을 쥐고 귀와 어깨 사이 높이로 올려줍니다.
  - 3) 팔을 뒤쪽 및 위쪽으로 가볍게 돌려줍니다.

5. 그 외에 가벼운 스트레칭이 좋으며, 수영, 배드민턴, 테니스 등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은 똑바로 펴고, 등도 똑바로 세우는 자세가 허리 구부림도 방지하고 건강한 어깨를 만듭니다.
6. 파스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 무릎 관절염 >

1. 퇴행성관절염은 노화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2. 무릎관절염은 습기로 인한 통증이 많습니다.
3. 관절염 예방은 체중을 빼고 몸의 부기를 빼야 합니다.
4. 음식 중에는 습기를 제거하는 묘약이 “울무”입니다. 울무차에는 울무보다 설탕이 많아 오히려 비만을 부르고 통증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울무를 직접 구입해 죽이나 밥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 무좀 >

1. 무좀의 원인은 백선균이라는 곰팡이입니다. 발을 청결하게 하고 건조하게 관리하고 통풍이 잘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무좀균은 발의 각질을 먹고 삽니다. 따라서 각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3. 무좀균을 죽이기 위해 연고나 약을 사용하나 효과는 미미합니다.
4. 발을 깨끗이 씻고 드라이기 등으로 말리고, 신발은 가능한 통풍이 잘되고, 앞볼이 넓은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 < 비만 >

1.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BMI 지수가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합니다.
2. 먹는 양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살은 빠지지만 중간에 포기하면 수포로 돌아가고 요요현상이 찾아옵니다.
3. 다이어트 비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이어트는 장기전입니다.
4. 비만은 수많은 질병을 유발합니다.
5. 쌓인 지방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혈관에 상처를 냅니다. 곧이어 콜레스테롤, 지방 찌꺼

기 등 나쁜 물질이 상처 위에 쌓여 혈관의 흐름을 방해하면 고혈압이 됩니다. 이런 현상이 뇌혈관에 나타나면 뇌졸중, 심장 관상동맥에 나타나면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6. 비만은 들어오는 양을 줄이고 나가는 양을 늘리며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7. 과식을 줄이고 싱겁게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채소류 섭취를 늘립니다. 특히 야식을 삼가야 합니다.
8. 달리기와 걷기의 단점을 보완한 “파워 워킹”을 합니다. 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면서 힘차게 걷는 것입니다.

### < 건망증 >

1. 건망증은 단기적인 기억이나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방금 내가 무엇을 할려고 했는지 등 과거 경험과 같은 장기적인 기억들을 생각해내기 어려운 증상입니다.
2. 건망증과 치매는 다릅니다. “건망증”은 잠시 기억을 잃는 것으로 물건을 보게 되면 아! 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치매”는 기억 자체를 잃어버려 물건을 찾아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지나친 고민에서 건망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평소에 머릿속에서 계산을 열심히 하는 습관을 들이고, 노래를 외워서 부르기도 하고, 새로운 곳에 가서 그곳의 기억하려고 노력하다보면 어느새 기억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4. 양손을 써 보기도 하고, 눈 감고 한 발로 오래 버티기도 좋습니다.

“신 동의보감 건강혁명”은 4명의 한의사가 진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상담실을 열어 처음에는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다가 현재는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전반으로 모든 병을 치료하는 데는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하고, 그 병에 대한 원인과 치료를 상담해 준 것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또한 건강상 궁금한 것은 <http://hdjungin.tistory.com> 에서 상담받기를 추천합니다.

자료출처: 신 동의보감 건강혁명 ( 김범, 유남승, 윤상훈, 최정인 지음)

글: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제공

# MAJU SATU LANGKAH



네번째 한인청년회의 MAJU SATU LANGKAH (한걸음 앞으로) 행사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에서 2019년 1월 24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재인도네시아 한인청년회 정제의회장을 비롯한 KIYA(한인청년회) 회원들과 가졌다.

한인청년회 행사에 경제조정부(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4차관인 Bapak Rudy Salahuddin 과 노동/인력관련 국장인 Bapak Yulius Ibnue 및 다수가 참석해 심도있는 대화가 오갔다.

한인청년회 행사를 통하여 Bapak Rudy 차관은 한인청년회 회원들의 정부 요청 사항 및 애로 사항등을 아래와 같이 전달을 하였다.

1. 수입관련 규정 및 구비서류 등 빈번한 법규 개정
2. 국제 메가 프로젝트 입찰 취소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 투자유치정책의 잦은 개정으로 인하여 해외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

3. 원자재(특히 식자재) 가격의 심각한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 노동 경직성 및 해외투자 중소기업(SME)의 투자에도 Tax Holiday 및 세제 혜택 확대 피력

4. 관광객 1인 ID(신분증)당 1개 Sim Card 발급 제한으로 인한 관광객의 불편사항 및 WNI 1인 ID 당 3개 Sim Card 발급 제한의 문제점

5. 정부에서 물류 인프라 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특히 선박업의 Local Flagship 투자에 대한 국내은행의 Credit Line 규제 및 지원 제한, 그리고 인니선원의 질적/양적 확대가 필요 등 상기 한인청년회의 회원사들의 애로 사항에 대한 Bapak Rudy 차관의 답변이 있었으나, 민감한 부분이 있기에 공론화는 않하나, 상기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처 및 협조를 해주기로 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하면서 KIYA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 약 4년간 물류인프라 구축 및 확장에 재원을 집중할 계획이며, 향후 한국기업의 참여를 권유하였다.

# 서예가 인재 손인식 의 ‘경영이 예술이다 ‘ 출판기념회 및 인물과 서예전 개최



인재 손인식 서예가의 ‘경영이 예술이다’ 출판기념회와 ‘인물과 서예전 ‘사람이 예술이다’ 전시회가 지난 12일 토요일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됐다.

책 ‘경영이 예술이다’ 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손인식 서예가가 자카르타경제신문에 연재했던 인도네시아 한인 27명의 자기경영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한인 27명의 경영 이야기에 맞는 손인식 서예가의 맞춤 글귀를 서예 작품으로 전시하고 있어 이번 서예전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날 출판기념 행사에는 책 속의 주인공들 포함하여 양영연 한인회장, 천영평 한국문화원장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자카르타경제신문 임동진 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신기업 한인회 명예고문과 천영평 문화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27명의 주인공들의 소개와 소감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인물과 서예전은 1월 17일까지 한국문화원에서 전시됐다.



## 수카르노의 일생을 통해 본 인도네시아 현대사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 P-40 키티호크, P-51 머스탱, 더글라스 C47 수송기, B-25 미첼전폭기

지난 호에 이어

### 네덜란드군 제2차 공세 . 그라이 작전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 되었으나 안팎의 문제들이 계속 앞길을 막았다. 공화국 정부는 렌빌조약을 통해 네덜란드에 양보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애를 먹고 있었다. 한편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강화하면서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 했지만 시간은 절대적으로 인도네시아의 편이었다. 네덜란드는 렌빌조약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에서 결코 인도네시아와 타협할 생각도 없었지만 동인도제도의 식민지 회복을 위해 지출되고 있던 하루 1백만 달러가 넘는 군사비용은 마살플랜 등 해외원조로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복구를 해야 했던 네덜란드로서는 너무 큰 부담이었다. 마살플랜 원조의 상당부분을

네덜란드 정부는 무기와 병력의 형태로 바꾸어 지구 반대편 인도네시아에서의 전쟁에 투하되고 있었던 것이다.

렌빌조약 이후 계속된 협상은 마침내 결렬되고 네덜란드는 일방적으로 인도네시아 연방안을 밀어붙였다. 이 새로운 안에는 남부 수마트라주와 동부 자바주가 신설되어 있었으나 네덜란드는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다. 네덜란드는 연방자문의회(BFO)를 만들어 인도네시아 합주국 임시정부의 구성을 1948년 말까지 완료토록 촉구했다. 그러나 공화국 정부의 입지를 대폭 줄여버린 이 계획을 공화국이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었다. 자바와 수마트라 상당부분을 실질 점령하고 있던 공화국에 대한 언급은 이 계획의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공화국은 아직도 반목라인의 네덜란드측 지역에 남아있던 공화국 거점들이 대대적으로 공격당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렌빌조약 초기였던 1948년 2월, 공화국측은 조약내용을 이행하는 동시에 공화국군의 건재함을 보여줄 목적으로 나수티온이 이끄는 35,000명 규모의 공화국군 실리왕이 사단이 서부자바에서 중부자바로 행진해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벌였던 터였다.

이러한 병력의 재배치는 사실상 수라카르타 지역에서 내부갈등을 빚던 반란인자들을 위협하려는 군사적 실력과시이기도 했다. 그런데 공화국군이 반목라인을 넘어 공화국 지역으로 철수하던 과정에서 슬라멧산을 횡단하던 한 부대가 네덜란드군과 충돌했고 네덜란드측은 이를 반목라인 전역에 걸친 공화국의 조직적 군사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반목라인의 네덜란드측 지역에서 아직도 활동하던 공화국군 게릴라들이 네덜란드의 괴뢰자치주인 서부자바 빠순단주를 침식하고 있던 상황과 다른 여러 가지 부정적 보고들이 맞물려 네덜란드군이 해당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위기감을 고양시켰다. 그러던 중 1948년을 관통하면서 발생한 다룰이슬람 반란과 그해 9월의 마디운 공산당반란은 공화국에게는 재앙이었지만 네덜란드에게는 더없는 호재로 작용했다.



렌빌조약 당시 실리왕이 사단장 압둘 하리스 나수티온 대령

이 반란들로 인해 공화국군의 전력이 크게 약화되었을 것이란 판단은 렌빌조약을 파기하고 최종적 군사작전을 통해 공화국 정부를 와해시키려던 네덜란드에게 확신을 더해 주었던 것이다.

끄라이작전(Operatie Kraai)은 암호명 ‘까마귀작전’이라고 번역된다. 1947년 7월의 프로덕트 작전에 이어 이 끄라이작전은 1948년 12월부터 1949년 1월 사이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공화국에 대한 네덜란드군의 두 번째 총공세였다. 네덜란드는 이를 두 번째 “경찰행동”이라 부르고 인도네시아 측에선 ‘네덜란드군의 제2차 공세’라 부른다

두 번째 경찰행동에는 링가자티 조약에 명시된 연방정책 집행에 있어 인도네시아의 협조를 촉구한다는 핑계도 붙어 있었다. 군사행동의 목적은 분명했다. 인도네시아를 네덜란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연방국가로 새로 조직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직접적 동기는 인도네시아가 렌빌조약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네덜란드 측은 당초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인도네시아군이 철수하는 댓가로 공화국 지역에 대한 해상봉쇄를 풀기로 했는데 인도네시아군이 비밀리에 다시 네덜란드 지역으로 돌아와 게릴라작전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1948년 9월 공화국의 암호문 해독에 성공해 네덜란드군이 상대편의 군사적, 외교적 전략과 계획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기인한 자신감 역시 크게 작용했다. 이를 토대로 확신에 찬 네덜란드군은 전장과 외교무대에서 공화국의 우위에 섰고 실제 공세를 벌이기 며칠 전 임박한 군사작전에 대해 자카르타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여유까지 보였다. 당시 정세를 읽은 인디아 수상 자와할랄 네루는 전용기를 보내 수카르노와 하타를 서부 수마트라의 부깃평기로 빼돌려 비상시국 임시정부를 수립토록 한 후 인도네시아 사절단을 뉴델리를 경유해 뉴욕까지 데려가 유엔 총회에서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옹호하려 했다. 당시 신생 독립국이었던 인디아는 서방제국주의와 맞서고 있던 인도네시아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정보를 미리 입수한 네덜란드군은 인도네시아와 인디아가 시간조율을 할 수 없도록 선수를 쳤다.

12월 8일 네덜란드의 빌 고등판무관은 자카르타에서 라디오방송을 통해 다음 날 중대발표를 할 것임을 공표했다. 그러나 통신선이 두절된 상태여서 족자에서는 이 소식을 듣지 못했다. 한편 스폴 장군은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 기습공격을 명령했고 이 작전의 암호명이 크라이작전, 즉 까마귀작전이었다. 네덜란드군은 12월 19일로 계획된 공화국군의 군사훈련 일정에 맞추어 작전을 시작하도록 조정해 공화국군으로 하여금 네덜란드군의 침공이 실제상황인지 훈련인지 혼란에 빠뜨려 기습공격의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기획했다. 이 침공계획은 유엔의 정전감독위원회인 GOC에도 사전 통지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시작되었다.

첫 공격은 12월 19일 새벽 04시30분에 시작되었다. 반둥비행장에서 이륙한 네덜란드군 항공기가 공화국측의 방공망을 피해 인도양으로 우회해 족자를 향해 날아갔고 그사이 네덜란드군 빌 고등판무관은 라디오방송을 통해 네덜란드가 더 이상 렌빌조약에 구속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이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었다. 그와 동시에 네덜란드군은 자바와 수마트라 전역에서 인도네시아군의 주요 거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새벽 05시30분 족자의 라디오방송국과 마구워 비행장이 ML-KNIL(동인도제도 네덜란드 공군)에 의해 폭격당했다. 당시 공화국군은 일본군이 사용하던 미쯔비시 제로기 달랑 3대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네덜란드 공군은 P-40 키티호크, P-51 머스탱, B-25 미첼 전폭기들은 물론 더글러스 C47 수송기 23대를

동원해 병력을 실어날랐으므로 크라이 작전에서 네덜란드의 제공권은 가히 압도적이었다.

네덜란드군 공수부대가 낙하하던 마구워 비행장은 고사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인도네시아 공군 사관생도 47명을 비롯한 150여 명이 방어하고 있었다. 네덜란드군은 먼저 더미들을 낙하해 사격을 유도했고 사격위치가 확인된 비행장 수비대를 전투기들이 기총소사로 쓸어버리는 작전을 썼다. 25분간 지속된 이 전투에서 네덜란드군은 아무런 인명피해도 없이 128명의 공화국군을 사살하면서 공항을 점령할 수 있었다. 공항외곽 지역까지 완전히 확보한 것이 06시45분이었고 네덜란드군 후속부대가 두 차례에 걸쳐 마구워 비행장에 추가 착륙했다. 이 비행장은 스마랑에 근거지를 둔 네덜란드 공군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아침 08시30분, 스폴 장군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모든 네덜란드군에게 반목라인을 넘어 족자를 점령하고 공화국의 ‘불안정한 요소들’을 ‘축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948년 12월 크라이작전 직전의 인도네시아 상황. 빨간색이 공화국 지역이고 그 경계가 렌빌조약 휴전선인 반목라인





루이 요셉 마리아 빌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 고등판무관  
재임기간: 1948. 10. 29 ~ 1949. 5.18)

끄라이작전의 주 목표는 공화국 임시수도인 족자를 공격하여 함락시키는 것뿐 아니라 수카르노 정부를 방어하기 위해 족자로 집결할 공화국 정규군(TNI)을 신속히 궤멸시키는 것이었다. 네덜란드군은 공중과 육상에서의 압도적 전력을 이용해 인도네시아 공화국군에 대한 결정적이고도 최종적인 승리를 이끌어 내려 했다. 하필이며 자바군 사령관 나수티온 대령은 동부자바 시찰을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네덜란드군의 맹렬한 공습에 족자의 인도네시아군의 방어망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렸고 신속히 진주한 네덜란드군은 공항과 주요도로, 교량 등 전략적 거점들을 점령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전군사령관 수디르만 장군은 족자에서 결사항전하기보다는 게릴라전을 펼치며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병력피해를 최소화 하려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선 가능한한 네덜란드군과의 교전을 피해 과멸적 패배를 면해야 민 했다. 그는 군을 재건하고 힘을 키울 시간을 얻기 위해 잠시 영토를 내주는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실제로 TNI 병력 대부분은 족자 서부에서 밀고 들어오는 네덜란드의 측면공격을 견제하며 네덜란드군 주력을 피해 족자를 이탈하고 있었다.

우리는 공격받았다. 네덜란드 정부는 휴전협정을 위반했다. 모든 병력은 네덜란드군의 공격을 맞아 기존에 결정한 계획들을 수행하라.

- 1948년 12월 19일 수디르만 장군의 라디오 방송연설

기습공격 보고를 받은 수디르만 장군은 라디오방송을 통해 ‘긴급명령’을 하달하는 한편 수카르노 대통령과 다른 공화국 지도자들이 함께 족자를 탈출해 게릴라군과 합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통령궁을 찾아와 그렇게 말하는 수디르만 장군과, 그를 수행한 TB 시마뚜빵 중령을 기다리게 해 놓고 수카르노는 긴급 각료회의를 소집했다. 그 회의의 결과는 수디르만의 요구를 거절하고 족자에 그대로 남아 끝까지 유엔 및 중립국 정전감독위원회 사절단들과 연락을 취하겠다는 것이었다. 수카르노는 족자의 공화국 지도부에 유고가 발생할 경우 수마트라에 ‘비상시국 긴급정부’를 설치하는 계획도 수립해 놓은 상태였다. 그것은 일견 족자에 남아 최후의 순간까지 목숨을 걸고 저항하겠다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탈출과정에서 벌어질 전투에서 정부 수뇌부의 인명피해를 감수하기보다 차라리 스스로 네덜란드군의 포로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이 진정 네덜란드군에게 포로가 되어 국제사회의 동정을 불러 일으키겠다는 치열한 애국심의 발로였는지, 아니면 닥쳐온 파국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몸부림이었는지는 몰라도 수카르노는 족자탈출과 게릴라전 참여를 거절하고 정부각료 전체와 함께 그곳에 남기로 했다. 견잡을 수 없는 실망감을 애써 눌러 참으며 각료들 앞을 빠져나온 수디르만은 참담한 심정에도 불구하고 공화국군의 퇴각을 지휘했고 자신도 간신히 네덜란드군의 포위망을 뚫고 족자를 탈출할 수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 2019년 1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 인도네시아 '뉴 발리' 지정 관광지 대부분 지진 · 쓰나미에 취약

인도네시아가 발리에 못지않은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하려던 10곳의 이른바 '뉴 발리' (New Bali) 중 8곳이 지진과 쓰나미에 취약하다는 현지 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21일 일간 폼빠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 (BNPB)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관광산업이 재난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수또보 뿌르워 누그로호 BNPB 대변인은 "실상 (뉴 발리로 지정된) 10곳 중 8곳이 지진 취약 지역이고, 일부는 쓰나미 위험도 있다" 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광산업을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또바 호수와 롬복 섬 남부 만달리카 해안, 보로부두르 사원 등 10곳을 '뉴발리' 로 지정하고 개발 · 홍보해 왔다.

인도네시아 국토 면적의 7.6%에 불과한 발리와 자바 섬으로만 관광객이 쏟아지는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수또보 대변인은 "방카 블리퉁과 빨라우 스리부 를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이 재난 위험에 노출돼 있다" 고 우려했다.

실제 '10 뉴발리' 중 한 곳으로 지정된 자바 섬 반튼 주 판중 르송 해변에선 지난달 22일 밤 갑작스러운 쓰나미로 100여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순다해협에 있는 화산섬인 아낙 프라카따우의 경사면이 붕괴해 쓰나미가 발생했을 당시 판중 르송 해변에선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회사 직원들을 위한 록밴드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피해가 더욱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8월에는 롬복섬 북부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564명이 숨지고 수십만명의 이재민이 생기기도 했다.

수또보 대변인은 "개발 단계에서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7~40달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면서 재난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BNPB는 2018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2천500여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해 최소 4천 23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힌 바 있다.

## 인니 대선, 조코위 대통령 우세 확인...지지율 격차는 좁혀져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현 대통령의 우세가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야권 대선후보인 뿌라보위 수비안또 대 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당) 총재와의 지지율 격차가 차츰 좁혀지고 있는 만큼 재선을 낙관하기는 일러 보인다.

23일 주간 뎀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최근 실시된 세 차례 여론조사 모두에서 뿌라보위 후보를 크게 앞섰다.

여론조사기관 인도네시아서베이연구소(LSI)가 지난달 16일부터 열흘간 전국 유권자 1천2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마룹 아민 전 울레마협의회의(MUI) 의장은 54.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뿌라보위 후보와 러닝메이트인 산디아가 우노 전 자카르타 부지사의 지지율은 이보다 20.1%포인트 낮은 34.8%에 그쳤다.

그러나 양자의 지지율 격차는 작년 10월 이뤄졌던 같은 여론조사보다 2.9%포인트가량 줄었다.

다른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 수르베이 나시오날(Media Survei Nasional, 이하 Median)이 이달 6일부터 열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조코위 대통령(47.9%)은 뿌라보위 후보(38.7%)를 앞섰지만, 양자 간 격차는 3개월 전보다 3.0%포인트 줄어든 9.2%포인트에 그쳤다.

여론조사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뿌라보위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반면, 현지 싱크탱크 짜르따 뿌리띠까(Charita Politika)가 지난달 22일부터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율이 53.2%, 뿌라보위 후보의 지지율이 34.1%로 나타났고, 뿌라보위 후보는 3개월 전보다 지지율이 오히려 1.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은 올해 4월 17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며, 약 1억8천70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현재까지의 판세는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친서민·개혁 정책을 내세워 돌풍을 일으켰던 2014년 대선 당시와 달리 독보적으로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무슬림 과격파의 음해를 막고 보수성향 유권자를 끌어안기 위해 영입한 부통령 후보인 마룹 전 의장은 오히려 조코위 대통령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마룹 전 의장은 법률과 인권, 테러, 부패 문제를 주제로 지난 17일 진행된 첫 대선후보 TV토론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열정적으로 토론에 임한 다른 후보들과 대조를 이뤘다.

## 발리 폭탄테러 연루 성직자 석방 무산?...논란 일자 재검토



202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2년 발리 폭탄테러의 배후로 알려진 이슬람 성직자를 조기 석방하려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논란이 커지자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22일 일간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위란또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 조정장관은 전날 밤 기자회견을 하고 이슬람 성직자 아부 바카르 바시르(81)의 석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란또 장관은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이 성급히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면서 관련 당국자들에게 이 문제를 철저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수일 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자들은 바시르가 곧 석방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바시르가 인본주의와 민주주의 등을 규정한 인도네시아의 건국이념 ‘판차실라’(pancasila)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 작성을 끝까지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현지에선 거센 논란이 일었다.

인도네시아법에 따르면 테러범은 해당 서약서를 작성해야만 가석방이 허용된다.

알카에다 연계 테러조직인 제마 이슬라미야(JI)의 정신적 지도자인 바시르는 현행 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며 이슬람 국가 건설을 추구해 왔다.

그는 2002년 발리 테러를 사실상 주도하고도 끈질긴 법정투쟁 끝에 2006년 무죄로 풀려났으나, 2010년 인도네시아 대통령 암살을 준비하는 테러 훈련소에 자금을 댄 혐의로 재차 입건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18일 건강 악화 등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바시르를 조기 석방하겠다고 밝혔으나, 사면권까지 행사하면서 테러범을 풀어줘선 안 된다는 비판이 커지자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소재 싱크탱크인 분쟁정책연구소(IPAC)의 시드니 존스 소장은 “(JI가 와해한 만큼) 바시르의 석방은 인도네시아의 테러 집단을 강화하는 효과는 없겠지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들을 부추기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발리 테러로 자국민 88명이 목숨을 잃은 호주도 지난 주말 스콧 모리슨 총리를 포함한 정부 당국자들이 일제히 나서 인도네시아 측에 바시르의 조기 석방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英 EIU '민주주의' 순위서 인도네시아 세계 65위

인도네시아가 영국의 글로벌 조사기관이 발표한 2018 민주주의 지수에서 세계 65위로 평가됐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이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18' (Democracy Index 2018)에서 인도네시아는 10점 만점에 총 6.39점을 받아 65위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48위에서 2017년에는 20단계나 떨어진 68위를 기록한 바 있다.

EIU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전 세계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시민의 자유,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문화 등 5개 카테고리 별로 조사해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각 항목은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된다.

이를 토대로 8.00 점 이상인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6.00 점 이상~8.00 점 미만은 '흠결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4.00 점 이상~6.00 점 미만은 '하이브리드 체제(hybrid regime)', 4.00 점 미만은 '전제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21위로 전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돼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 20개국에는 한계단 차이로 포함되지 않았다.

주요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은 7.99로 한국의 뒤를 이어 22위를 차지했고, 대만은 7.73으로 32위, 싱가포르의 6.38을 받아 66위에 올랐다.

130위에 머무른 중국은 3.32를 받아 '권위주의' (authoritarian)로 분류됐으며, 북한은 1.08로 전년과 같이 16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상위권에는 주로 북유럽국가들이 포진했다. 노르웨이(9.87)와 아이슬란드(9.58), 스웨덴(9.39)이 1·2·3위를 차지했으며, 덴마크(9.22)도 5위에 올랐다. 뉴질랜드는 9.26을 받아 비(非) 북유럽국가 중 유일하게 5위권 내에 들었다.

일본을 제외한 G7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9.15)가 6위에 올랐고, 독일(8.68)과 영국(8.53)이 각각 13·14위를 차지했다. 미국(25위·7.96), 프랑스(29위·7.80) 이탈리아(33위·7.71)는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다.

EIU는 권위주의 확산에 따른 민주주의 퇴조 현상이 지난해에는 멈춰 섰다고 분석했다. 2017년에는 89개국이 민주주의의 퇴보를 경험했지만, 2018년에는 42개국만 민주주의 지수가 하락했으며 48개국의 지수가 개선됐다.

정치 참여 지수가 다른 지수들보다 큰 폭으로 개선됐으며, 특히 여성 의원의 비율로 측정하는 여성의 정치 참여 항목은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EIU는 "여성 정치 참여 항목의 가장 눈에 띄는 증가는 미국에서 이뤄졌다"며 "이는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여성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중간선거 결과 하원 441석 중 106석, 상원 100석 중 25석이 여성으로 채워져 미 의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역대 최고치인 24.2%로 증가했다.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박재한** 재인도네시아한인회수석부회장은 순수 자본으로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최초의 4성 호텔 자바팔레스 설립(2013년)인이자 경영주다. 아울러 인정받는 봉제회사 BPG의 설립자로, 경영일선을 지킨 지 22년째인 베테랑이다. 2017년 7월에는 대규모 물류창고 회사 BPG LOGISTIC을 창설하여 새 이정표 하나를 우뚝 세웠다. 이곳은 인도네시아전역에 지평을 넓히고 있는 롯데마트가 모든 물류의 중심기지로 삼고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전역 300여개 회원사를 거느린 KOGA(인도네시아한국봉제협의회)의 회장이다.

충청북도 충주를 중심으로 열린 2017년 98회 전국체전 때는 인도네시아한인선수단단장을 역임했다.

한인뉴스 편집팀은 1월 12일에 열린 서예 전시회(자카르타 한국문화원)에서 박재한회장을 만났다.

“오늘이 있게 한 큰 인연은 첫째가 봉제 산업이고 둘째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사회 첫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봉제 산업이다. 그것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를 오게 되었다. 한국에서 4년여, 인도네시아에 와서 5년여 경험을 쌓은 즈음에 우연처럼 창업할 기회가 찾아왔다. 1997년 BPG가 인도네시아에서 탄생한 제가 설립한 가먼트 회사입니다.

충청북도 괴산 시골 출신입니다. 잊히지 않는 것이 농한기와 농번기지요. 씨를 뿌릴 때와 거둘 때가 엄연하다는 것이 제가 어렸을 적부터 체득한 자연의 진리입니다. 반면 열대 나라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품종이 파종과 수확기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또한 결실을 기다려야 합니다. 싹이 트고 자라며 익는 기간이 꼭 필요하지요. 그건 한국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간이 쌓여야 하고 때에 알맞아야 하죠.

## 박재한 수석부회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때에 알맞은 판단입니다.

저는 평소 좀체 서두르지 않는 성격입니다. 다만 판단이 서면 밀어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 배짱이 필요하다는 의미지요. 제 경험에서 얻은 산 철학이랄까요? 적절한 상황 판단과 밀어붙이는 힘.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저 스스로 늘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남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2019년 2월예정)하는 4년여 전 대학원입학을 감행. 경영과 사회활동, 취미활동의 틈바구니에 다시 시간을 쪼개 만학의 길을 선택했다.

“수업참가때문에 4년동안 수없이 대전을 오갔죠. 그런데 벌써 졸업을 했습니다. 과정을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순간들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니 4년이 짧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공부를 할수록 이유가 선명해졌습니다. 실무야 익숙하고 자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학문적으로 더 닦고 체득하는 공부는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성취감이 큰 공부였어요.

제 이번 박사학위 논문은 온라인쇼핑몰에 관한 연구입니다.

한국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소비되는 현상에 관한 집중 연구죠. 온라인의 편리성과 위력, 무역체계를 과상적으로 변화시킨 영향에 관한 연구이기도 합니다. 매우 활동적인 온라인 매니아 47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습니다. 온라인의 효율과 활용,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 상세한 항목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하고 연구한 것입니다. 시간의 효율을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온라인은 삶의 절대적인 도구입니다.

생산자나 소비자 다함께 유통과정을 들여다보고 알 수 있습니다.직거래가 가능함은 물론 이런 온라인이 가져온 것은 유통의 혁신입니다. 유통 이윤의 상당부분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학위과정을 시작했을 때와는 다른 이젠 확실한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운송체계가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서비스 경쟁심화로 누가 더 운송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선점하느냐에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10초 구매로 나아가고 있다. 생산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빨리 손에 쥐여 주느냐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죠. 온라인 전체가 이젠 성장기에서 도약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논문

우리 모두 주목해야 할 팩트죠. 특히 세계적인 유통 기업들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이마트나 GS 쇼핑몰 등이 기울이는 쇼핑몰 쌍방 소통 노력은 세계의 모든 세대 라이프스타일을 바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눈길이 닿는 길목마다 사람을 유혹하는 플랫폼들이 아름다운 미소로 고객을 맞이하고 있으니까요. 부킹닷컴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선 편리하니 활용하지 않을 재간이 없거든요.”

- ‘경영이 예술이다’ 박재한 편에서 발췌 -

**- 외형은 정도만 걸으셨을 것 같은 암전한 느낌을 받습니다. 살면서 일탈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일탈을 하려해도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그날 해야 할 일과 일정을 소화 하는데 늘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 우선적으로 회사 업무에 초점을 두고 시간 할애를 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공부도 하고 취미 생활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느낌을 항상 갖습니다.

**- 새롭게 또 도전하고픈 게 있나요..?**

아직도 이런 저런 것 보면 모두 다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곧 박사 학위도 받을 텐데 제가 지금 까지 산업 전선에서 직접 경험 해본 실무에 학문으로 연구해온 이론을 접목시켜 강단에서 경영자의 후배 양성과 젊은 친구들 교육에 이바지 하고 싶습니다.



**- 5년 뒤 예상하는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지금과 딱히 크게 변화진 않을 것 같은데 새로 시작 하는 물류 사업이 정상화 되고 멋지게 바뀐 골프 스윙폼과 운치 있는 붓글씨를 쓰면서 색소폰을 친구 삼아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 해봅니다. ‘대니보이’ 를 마스터해서 멋진 연주도 해보고 싶습니다.

취미도 즐기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잖아요.

**“일탈이요? 하려해도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 제19회 한인미술협회 정기전

2019년 1월 12일부터 1월 20일까지 자카르타 Lotte Shopping Avenue Main Atrium에서 제 19회 재인도네시아 한인미술협회 정기전시회가 열렸습니다.

2000년에 창립된 이후 활발히 한국미술을 알리고 인도네시아 예술계와 교류를 넓혀가는 한인미술협회는, 작년 18회 정기전에 이어 올해도 좀 더 많은 대중들과의 소통하고자 시내 대형쇼핑몰인 Lotte Shopping Avenue에서 정기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월 12일 오후 5시, 메인 아트리움 대형무대에서 한인미술협회 신돈철 회장의 인사말로 전시회의 시작을 알린 오프닝 행사에서는, 김창범 주 인도네시아 대사님과 한인 문예총 박형동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한인스트링 바이올린과 첼로 듀엣공연, 거문고 독주 공연 등의 축하공연이 어우러져 많은 인도네시아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관객들과 참여작가들은 경사스러운 날에 먹는 무지개떡과 백설기를 나눠먹으며, 전시된 작품들을 돌아보고 함께 어울려 전시회의 성공적 시작을 함께 하였습니다.

부임후 처음으로 한인미협 정기전에 참석하신 김창범 대사님은 미술협회, 한국문화원, 한인문예총 관계자 여러분들과 축하 및 격려말씀을 통해 예술로 인한 민간외교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번 19회 정기전에서는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아트액자 전문기업 Hanaqua의 액자협찬으로, 작품과 그것을 완성하는 프레임의 콜라보레이



션을 통해 한. 인니간 교류와 협력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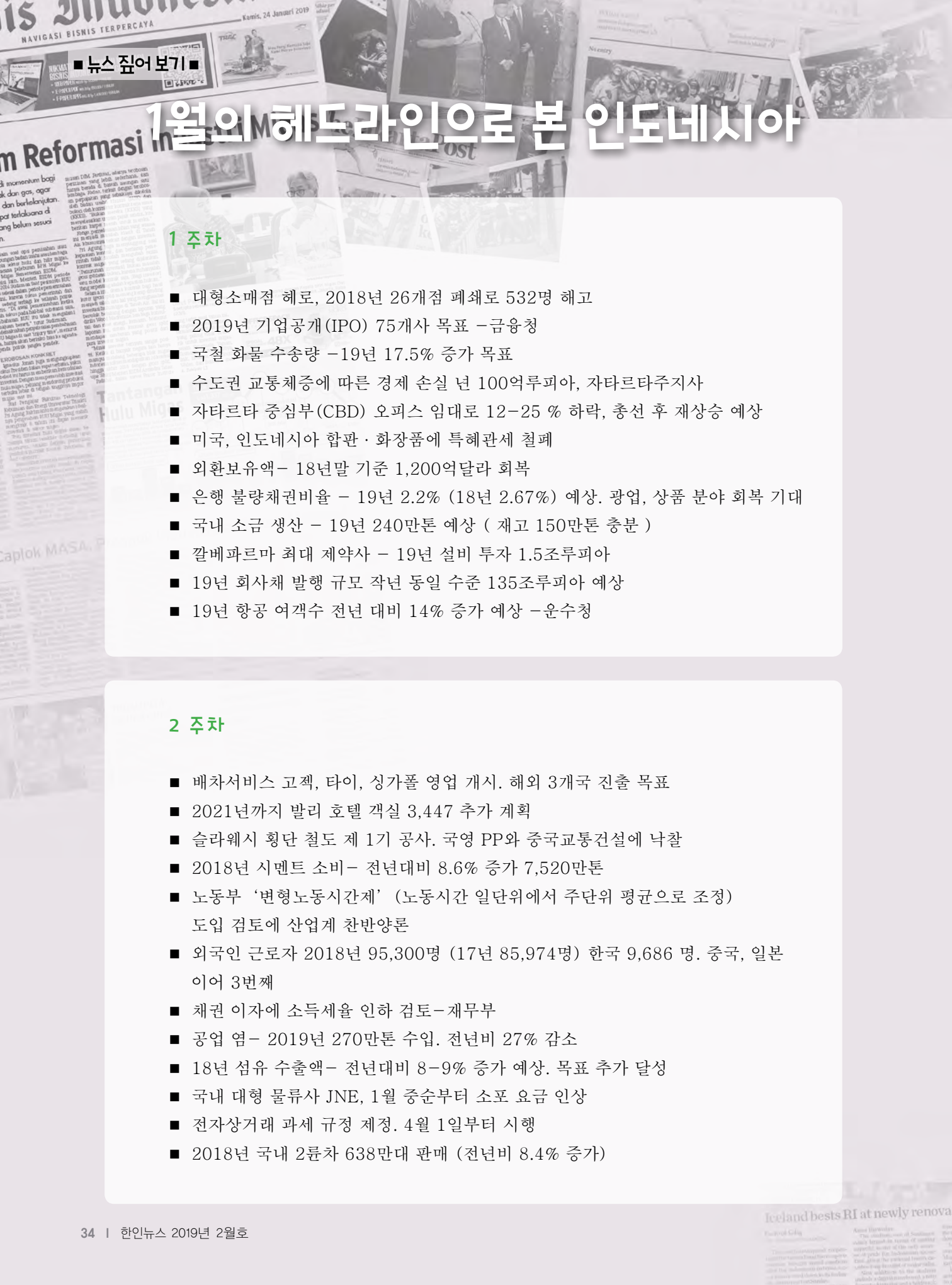
이번 정기전에는 19명의 미술협회 회원들이 총 50여점 이상의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유화, 아크릴화, 사진, 그래픽 아트, 설치미술 등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전시회 기간 중에 문화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한글 캘리그래피, 인물 크로키 실연, 페이스 페인팅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여 인도네시아 대중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미술작품을 단순히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대중과 가까이 하는 체험 및 시연을 통해 한국미술을 더욱 더 알리고 관심을 모으게 된 보람된 행사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인도네시아 아트 컬렉터 및 미술 애호가들에게 회원들의 작품이 판매되기도 하였습니다. Ciputra Group 소유주가 부인에게 선물할 작품을 구입하기도 하였고, 외국대사관 관계자, 일반인,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시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회원들의 작품이 판매되었습니다. 좀 더 크고 열린 공간에서 정기전을 열어 소통한 결실이 보여지는 좋은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20회 정기전은 인도네시아 작가들과의 협동전시회 등, 더욱 큰 규모와 의미가 있는 예술이벤트를 위해 신돈철 회장과 한인미술협회 회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준비하고자 합니다. 한인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미술에 대한 사랑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인미술협회 사무장 최희정





# 1월의 헤드라인으로 본 인도네시아

## 1 주차

- 대형소매점 헤로, 2018년 26개점 폐쇄로 532명 해고
- 2019년 기업공개(IPO) 75개사 목표 -금융청
- 국철 화물 수송량 -19년 17.5% 증가 목표
- 수도권 교통체증에 따른 경제 손실 년 100억루피아, 자타르타주지사
- 자타르타 중심부(CBD) 오피스 임대료 12-25 % 하락, 종선 후 재상승 예상
- 미국, 인도네시아 합관 · 화장품에 특혜관세 철폐
- 외환보유액 - 18년말 기준 1,200억달러 회복
- 은행 불량채권비율 - 19년 2.2% (18년 2.67%) 예상. 광업, 상품 분야 회복 기대
- 국내 소금 생산 - 19년 240만톤 예상 ( 재고 150만톤 충분 )
- 깔베파르마 최대 제약사 - 19년 설비 투자 1.5조루피아
- 19년 회사채 발행 규모 작년 동일 수준 135조루피아 예상
- 19년 항공 여객수 전년 대비 14% 증가 예상 -운수청

## 2 주차

- 배차서비스 고젝, 타이, 싱가포르 영업 개시. 해외 3개국 진출 목표
- 2021년까지 발리 호텔 객실 3,447 추가 계획
- 슬라웨시 횡단 철도 제 1기 공사. 국영 PP와 중국교통건설에 낙찰
- 2018년 시멘트 소비- 전년대비 8.6% 증가 7,520만톤
- 노동부 ‘변형노동시간제’ (노동시간 일단위에서 주단위 평균으로 조정) 도입 검토에 산업계 찬반양론
- 외국인 근로자 2018년 95,300명 (17년 85,974명) 한국 9,686 명. 중국, 일본 이어 3번째
- 채권 이자에 소득세율 인하 검토-재무부
- 공업 염 - 2019년 270만톤 수입. 전년비 27% 감소
- 18년 섬유 수출액- 전년대비 8-9% 증가 예상. 목표 추가 달성
- 국내 대형 물류사 JNE, 1월 중순부터 소포 요금 인상
- 전자상거래 과세 규정 제정. 4월 1일부터 시행
- 2018년 국내 2륜차 638만대 판매 (전년비 8.4% 증가)

### 3 주차

- 19년 발리 외국인 관광객 700만명 기대 (전년대비15% 중)
- 중국 wuling motor-인니 컷 SUV [Almaz] 신차 발표. 부품 현지 조달 40% 이상
- 국내 식품가격 년초 5~10% 인상. 루피아 약세 원인
- 인니 컷 농촌차 (AMMDes) 2019년 3,000대 생산. 향후 15,000대 /년 (픽업형 배기량 700cc 최고시속 40Km 예상가격 7천만루피아)
- 영화관 시네 21, 2019년 150-200 스크린 신설 계획
- 유니이트 트랙터(UT) 19년 건설 중기 판매 목표 4,000대 하향 조정
- 2019년 스마트폰 판매. 전년대비 4% 증가 예상
- 국내 유통 식품, 의약품 할랄 인증 제품은 전체 10% 뿐 (mui-LPPIM)
- 캄보디아에 LNG수출 관심. 캄보디아 전기료 인하기대. 유습갈라 -훈센총리
- 19년 원유,천연가스 일생산목표 202.5 만 배럴 (2018년 200만 배럴)
- 2018년 무역수지 4년만에 적자 기록. 중국부터 수입 급증 영향
- 인도네시아 2019년 쌀 수입 불요. 현재 비축210만톤으로 충분

### 4 주차

- 국영 만다리은행 수수료 수입 증대로 2018년도 순익 21% 증가
- 자와 본토내 대형 발전소 3개소, 금년 9-10월 가동
- 코카콜라사, 인도네시아 국내 커피 사업 확대
- 국영 브르따마나, 금년 주유소 200개소 추가 개설
- 시나르마스 창업자 예카 째따 위자야씨 별세(향년 98세)
- 국영은 BNI 금년중 은행, 보험회사 추가 인수 계획
- 중국 wuling motor, 잠비에서 첫 정규 달러 개소
- 영화 관람 수입, 금년 14% 증가 2.4조 루피아 목표-창조경제청
- 자카르타 지하철 2월, 운임 결정 및 승객 탑승 시운전 개시
- 전 자카르타 화교 주지사 바수끼 출소(종교모독죄)
- 작년 공적채무 잔고 4,418조3천억루피아(17년 대비 10.6% 증가)
- 가루다항공그룹, 금년 여객 수송 16% 증가 목표 책정

<정리:편집국>



# Bistecca (SCBD)

글: 주윤지 (한국컨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까치까치 설날은 어제께구요~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매년 2월은 설날 연휴로 대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달이기도 하지만, 연인들에게는 설레는 발렌타이데이가 있는 달이기도 하지요~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발렌타이데이 맞이 연인들을 위한 로맨틱한 식당을 준비해 봤습니다@@

짜잔~그 곳은 바로바로 SCBD에 위치한 Bistecca라는 이탈리아 식당입니다!

주말에는 예약 없이 식사하기 힘든 식당 중 하나로, 가성비 좋은 스테이크 맛집으로 제가 손꼽는 식당입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여기가 과연 인도네시아인지 유럽인지 착각이 들게 하는 클래식한 인테리어가 강렬한 첫 인상을 줍니다. 오늘은 로맨틱한 발렌타이데이 기념 식사인 만큼 고기를 썰어 볼까 합니다^0^ 가볍게 식전 빵으로 배를 살짝 채우면, 주문한 Bistecca Caesar Salad(120,000루피아++)가 나옵니다. 사실 시저 샐러드가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표현보다는 시저 샐러드를 눈 앞에서 만들어 준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식당이 유명해진 이유 중의 하나가 시저 샐러드 때문인데요.

주방장이 큰 치즈덩어리를 끌고 나와 테이블 앞에서 수저로 쓱쓱 치즈를 갈아 로메인 상추와 엔초비를 버무려 시저 샐러드를 눈 앞에서 만들어 줍니다. 아삭아삭 야채가 얼마나 신선한지 모릅니다...자카르타에서 정말 드문 신선한 샐러드랍니다.

입으로만 즐기는 음식이 아닌 눈으로도 즐기기 좋은 식당이에요.

두근두근~자 이제 메인코스 스테이크를 영접할 시간입니다^^

다양한 스테이크 메뉴 중에서도 Angus Rib Eye (325,000루피아++)가 가격대비 양(300g)도 많고 퀄리티(호주산 블랙 앵거스)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디움으로 주문하시기를 추천드려요! 특별히 소스를 곁들이지 않고도 고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질긴 스테이크에 질려버리신 분들, 가성비가 떨어지는 스테이크에 화나시는 분들, 스테이크에 입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여기로 모이세요. 야들야들한 살코기가 여러분의 혀 속에서 사르르 녹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글을 쓰는 이 시점에도 부드러운 스테이크 맛이 자꾸 떠오릅니다...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진리의 스테이크 맛집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는 Truffle Mac&Cheese(100,000루피아++) 어떠세요? 트러플 오일이 곁들여져 느끼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리 느끼하지 않아요. 오히려 풍미가 깊어 자꾸 입맛을 당기는 맛이에요.

데이트 식사 마무리는 역시 디저트 아니겠어요? 이 식당의 대표 메뉴인 Signature Baked Alaska(130,000루피아++)를 빠뜨리시면 섭하지요. 분명히 디저트만 주문했는데 화려한 불쇼가 덤으로... 신세계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독자님들~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저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2019년 2월 14일 Bistecca를 들르십시오.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 정보로 찾아 뵈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 <식당 정보 : Bistecca>

음식 종류 : 이탈리아 음식

가격대 : Rp 8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11:00 ~ 01:00

전화번호 : 021-515-1660

위치 : 18 Parc SCBD, Tower C,

Lantai Ground, Jl. Jenderal Sudirman

Kav 52-53, SCBD Jakarta

※ Zomato 참고



엄재석 / 한국문협 인니지부 부회장  
Vapi21@daum.net

“태자의 몸으로 마의를 걸치고 스스로 험산(險山)에 들어온 것은 천년 사직(社稷)을 망쳐 버린 비통을 한 몸에 짊어지려는 고행(苦行)이었으리라. 울며 소맷귀 부어잡는 낙랑 공주의 섬섬옥수(纖纖玉手)를 뿌리치고 돌아서 입산(入山)할 때에 대장부의 흉리(胸裡)가 어떠했을까? 흥망(興亡)이 재천(在天)이라 천운(天運)을 슬퍼한들 무엇 하랴만 사람에게는 스스로 신의가 있으니, 태자가 고행으로 창명(蒼氓)에게 베푸신 도타운 자혜(慈惠)가 천년 후에 따습다.” (후략)

이 글은 고교 국어책에 나오는 수필작가 정비석의 “산정무한”의 마지막 부분이다. 작가는 천하 절경 금강산을 여행하고 느낀 소회를 유려한 필력으로 기행문을 남겼다. 그 중에서 유독 통일신라 마지막 왕자인 마의태자의 묘소에서 느낀 애절한 감정을 묘사한 구절을 나는 지금도 암송하고 있다. 언제 어디에 있던 간에 산정무한과 같은 글을 쓰고 싶었기에 이를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나 보다. 낭중지추(囊中之錐)란 고사성어가 있다. 주머니 속에 감추었던 송곳의 날카로운 끝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뜻이다. 내 속에 잠들었던 문학적

DNA였던 송곳이 드러나게 된 계기가 바로 제 1회 적도문학상이다. 2017년 초에 중국집 가야성에 갔다가 우연히 적도문학상 공모 포스트를 보았고 무엇에 홀리듯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무엇을 쓸까? 고민하다가 인도네시아에서의 삶을 주제로 정했다. 내 인생 2막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어 버린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이곳에서의 삶을 수필로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지난 과거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느낌이 어떻다고 일기체로만 쓰기에는 무의미하였다. 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꿈을 가미하여 건축 설계자가 도면 그리듯이 쓴 작품이 “울도국(인해촌)을 꿈꾸며”이다. 역사소설 홍길동 속의 주인공이 마지막에 남해 고도에 세운 적자 서자 차별이 없는 평등의 나라가 울도국이다. 이처럼 나도 이 자바 섬에 만들고 싶은 은퇴자 촌락의 별칭이 인해촌이다.

인해촌은 인도네시아 해외 은퇴자 촌의 약칭으로 풍광 수려한 곳에 모여 공동체 생활하자는 비전이다. 그 비전을 수필로 만들어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 지부에서 주관하는 적도문학상에 기고하였다.

평소에 회사의 사보나 건설관련 월간지에 기고할 정도의 필력은 된다고 자부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아쉬움을 남겼다. 장려상으로 상 중에서도 말석이지만 문학의 길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바로 적도문학상을 통한 인니문협과의 만남이다.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문학의 고수들을 만나고 그들의 시와 수필 등의 작품을 자주 접하게 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문인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나의 문학적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 회원들의 성별과 연륜도 다양하고 글쓰기 내공도 풍부한 회원들과의 주기적인 인문학 특강이 내 자신을 성찰케 한다. 거기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숙제하듯이 글을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필력도 키우게 되었다. 등단작가인 회장님이 직접 감수하고 가다듬어 교민 웹사이트와 주간지에 기고하여 주신다. 덕분에 인도네시아 교민 잡지인 한인뉴스에 나의 창작물이 주기적으로 실릴 기회도 있었다.

문학적 감성이 남다른 교민들로 구성된 인니지부는 한국문인협회에서 공인하는 해외지부로서 여러가지 문학사업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매년 적도문학상을 공모하여 신인 작가를 육성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더 많은 차세대 꿈나무들의 도전도 기대하고 있다. 문학행사의 일환으로 명사 초청 문학강연이 있는데 저명한 시인과 작가들이 인도네시아를 찾기도 하였다. 회원들이 단체로 명승지를 탐방하여 글쓰기 소재를 찾기도 한다. 언젠가는 살라피가의 사산 자바문화연구원과 암바라와 일본군 병영을 다녀와서 소재의 지평을 넓히기

도 하였다. 연말에는 한 해의 문학활동을 결산하고자 회원들의 작품을 모아서 동인지 <인도네시아 문학>을 발간한다. 문인들의 글이 실린 동인지 발간 기념식에서 창작노트를 발표하는 영광의 기회도 부여한다.

나만의 색깔을 지닌 문학 창작의 길을 가리라. 건설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노가다”라는 직업 세계의 애환을 글로 쓰고 싶다. 대부분의 건설인들에게 수필이나 시 같은 문학은 강 건너 불이다. 하지만 나는 글 쓰는 엔지니어로서, 현장의 문학으로 공학과 문학을 아우르는 통섭의 작가를 꿈꾼다. 나의 글을 통해 더 많은 청년 공학도들이 해외 건설현장에 도전하게 만들고 인혜촌을 통해 지인들이 이국 땅에서 은퇴생활을 하기 바란다. 그 여정에서 아름다운 인도네시아의 자연과 문화와 풍경들을 부족한 필체로 그려 보리라. 순박한 이 나라 사람들과의 이색적인 사연들도 진솔하게 쓰고 싶다. 가슴 속에만 간직하기에는 너무도 소중한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연들이다. 이제 또 다른 꿈을 꿈꾼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내 삶의 다양한 경험을 글로 남기며 더 성장하고 싶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어느 날 창작수필집이란 옥동자도 이 세상에 태어나리라. 적도문학상을 통하여 튀어나온 송곳을 더 갈고 닦고 싶다. 꾸준한 습작을 통해 단련된 수필작가로서 마의태자가 “창명에 베푸신 도타운 자혜”와 같이 따스한 봄날의 햇빛 같은 글을 쓰고 싶다. 이에

공감하는 작가 지망생들이 더 많이 금년도 제 3회 적도문학상에 도전하여 그들만의 낭중지추를 드러내기를 기대하면서...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 ‘우리가 꽃이었구나’

## 인문창작클럽 웹진 2호 출판기념 낭독회



인문창작클럽(회장 이강현)은 2017년 웹진 1호 “읽고 나누고 쓰다”를 발간한 데 이어 2018년 12월 15일(토) 웹진 2호 “우리가 꽃이었구나”의 출판기념 낭독회를 가졌다. 웹진 2호는 ‘인도네시아의 어느 곳’, ‘자카르타의 어느 곳’,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사람’ 등 계절별 테마에 따라 회원들의 시와 수필, 포토 에세이를 수록했고 번역서 출간이 임박한 네덜란드 고전소설 <막스 하벨라르>에 대한 특집도 담았다.

이날 출판기념 낭독회는 인문창작클럽(이하 ‘인작’)의 송년모임을 겸해 김의용 건축학 교수(인작 부회장)의 뽀독 빼냥 사육을 빌려 저녁 5시부터 인작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과와 음료를 갖춰 치러졌다. 지난 9월 발간된 배동선 작가의 <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 출판 축하도 겸했다.

이날 이강현 회장은 2019년에는 인작이 모두에게 더욱 편안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송년사로 밝혔고 새해 1월 귀국하는 박준영 회원은 중국민중들을 문학으로 각성시킨 작가 루쉰처럼 인작도 자카르타 한인사회의 생명력을 일깨우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기원했다.

인작은 20명의 회원 중 일부 귀국자들이 있어 회원충원과 재정비를 거친 후 새해 1월부터 3기 활동을 시작한다.

인작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문인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매달 관심분야 또는 전문분야에서 특정 주제를 정해 발표와 토의를 나누는 모임으로 데일리인도네시아와 자카르타 경제신문 등 교민매체에 매주 회원컬럼을 기고하고 인도네시아 한인교민사회 문화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제100주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기념 포스터 및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주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승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제100주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기념  
포스터 및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세부내용

1. 주제 : 제100주년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의 의의
2. 작품 카테고리 : 포스터/일러스트레이트/디지털(영상)/직접 그린 그림 등
3. 양식 : 그림파일(jpg/png, 5MB 이하)
4. 방법 : 링크된 서식에 첨부 (링크는 웹사이트에 있음)
5. 수량 : 최대 2개 작품 제출 가능(단, 다른 카테고리에 한함)

## 응모 자격

1. 학생부 (초.중.고)
2. 일반부 (대학생 이상)

## 세부일정

- 작품 접수 : 2019. 1. 14. ~ 2. 14. (18:00 접수분에 한함)
- 결과 발표 : 2019. 2. 20.
- 시상식 : 2019. 2. 23.
- 전시회 : 2019. 3. ~ 4.(100주년 기념 행사관련 전시장 등)

## 기타

- 학생부 상금  
(금상 1명 Rp 4백만 / 은상 1명 Rp 3백만 / 동상 1명 Rp 2백만 / 장려상 2명 각각 Rp 1백만)
- 일반부 상금  
(금상 1명 Rp 5백만 / 은상 1명 Rp 4백만 / 동상 1명 Rp 3백만 / 장려상 2명 각각 Rp 1백만)

## 문의 사항 (연락처)

- 사무실 : 021-29035650 (월~금 09:00 - 17:00)  
페이스북 메시지 : KCCIndonesia  
홈페이지 : id.korean.culture-org

## 제 20회 고교 졸업식



2019년 1월 23일, 반듯한 학사모를 손에 쥐고 있는 언니, 오빠들과 양손 가득 꽃을 들고 계신 부모님들 등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나래홀에서 ‘제 20회 고교 졸업식’이 개최되었다.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만큼 JIKS 12학년 선배님들은 아쉬운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졸업식에 참여하였고, 선생님들 그리고 후배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총 92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이번 졸업생은 재학생,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의 박수 갈채와 함께 시작되었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백우정 교장 선생님께서는 스티브 잡스를 예로 드시며 졸업생들에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보다는 인류를 발전시키며 자신의 삶을 꾸려가라고 응원 하셨고, 재단이사장님께서서는 학교의 자부심을 갖고 직식의 모토인 “Grow JIKS” 처럼 한해 한해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하셨다. 이후 송사 그리고 답사를 마지막으로 교가 제창을 하며 ‘제 20회 고교 졸업식’이 아쉽게 끝났다.

2학년이 되고 졸업을 할까 생각했다. 지금 졸업하는 선배들과 다양한 교내활동을 통해 시간을 보내고 친분을 쌓았던 그 시간들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고 이제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선배님들께서도 내일부터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매일 만났던 친구들을 이제 시간 내서 만나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셨던 선생님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이제 실감이 난다는 듯이 눈물을 보이고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나도 일년 뒤에 뒤따라 인도네시아를 떠나 오랫동안 함께한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헤어지는 모습을 상상하면 마음이 찡해지지만 한편으론 대학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기대되기도 한다.

(글: 학생기자 JIKS 송원경)

JIKS 고등학교 입학식 날, 나는 언제 고등학교

중앙대 의예과 1명, 건국대 수의예과 1명을 비롯하여 서울대 2명, 연세대 9명, 고려대 2명, 성균관대 32명, 서강대 14명, 한양대 24명, 중앙대 31명, 경희대 21명을 포함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진학을 확정짓고 이제 막 자신의 꿈을 향해 날아오를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JIKS를 졸업하는 학생의 수는 총 92명(남 55명, 여 37명)이며, 이 중 한국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면, 98.9%의 높은 합격률에 중복 합격을 포함하여 총 291곳의 대학에 합격하는 등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JIKS 제공-

## 공연과 함께하는 JIKS 초등 졸업

2019년 1월 23일(수),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JIKS-교장 백우정)는 나래홀에서 학부모 및 주 인도네시아대사관 총영사(김종민), 재단 이사장(배도운) 등 각 교민단체기관장 100여명의 내빈들을 모시고 6학년 30명의 제40회 졸업식을 가졌다.

졸업식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전래놀이 한마당, 장구공연, 댄스, 합창, 플래시몹, 바이올린 연주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된 1부 꿈나무 발표회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꿈나무 발표회가 끝나자 졸업생들의 6년 동안 학교생활을 담은 사진과 영상으로 2부 졸업본식 시작을 알렸다. 졸업생 모두에게 학교장이 직접 졸업장과 상장을 수여하며 축하하였고, 참석한 기관장들과 내빈들이 상장과 축하의 인사말을 전하였다. 학교장은 졸업생들에게 어디서든 자랑스러운 JIKS인임을 잊지 말자고 당부하였다. 특히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과 나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고 중학생이 되어서는 꿈을 위한 다양한 진로 탐색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재학생을 대표하여 5학년 천동현 학생은 선배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선배들이 베푼 사랑과 친절을 본받아 후배들을 돌보겠다는 송사를 하였다. 이어 졸업생 대표 6학년 송지섭 학생은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말과 더불어 앞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후배들에게는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졸업생들이 직접 제작한 “DREAM HIGH” 의미처럼 졸업생들이 앞으로 펼쳐질 새롭고 넓은 세상을 행복하고 건강하며 당당하게 걸어갈길 바란다.





# 나는 바하사로 수다댄다

민선희 (자카르타거주)

처음 인도네시아에 와서 언어 공부를 할 때였는데, 아이를 허리춤에 메고 집 앞에 나와 있는 엄마들에게 오며 가며 눈인사를 했었어요. “애가 몇 살이에요(Berapa umurnya?)” 하고 물으면 애기 엄마는 보통 “3년 5개월 됐어요(3 tahun 5 bulan)” 라고 하면서 꼭 몇 개월까지 붙이더라고요.

중국과 일본이 국제 나이 기준을 따르고 나니,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출생 연도부터 1살을 세는 나라가 되었어요. 올해부터는 ‘국제 기준으로 해야지’ 하면서 나이를 한두 살이라도 줄여보는 걸로 발버둥을 치고 있지요.

올 초 한국에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진 어김없이 인도네시아 친구들에게 ‘한국 나이 계산법’을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 호에서는 한국의 나이 계산법을 어떻게 바하사로 설명할지부터, “늙어서 그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이런 표현을 공부해 볼까 해요. 바하사로 수다 떠는 그날까지 열공~!



## 바하사로 수다 떨기

- ① Maria : Eh, Sani sekarang umur berapa?
- ② Sani : Umur Korea apa umur internasional?
- ③ Maria : Maksudnya? Emang di Korea beda, ya? Perhitungan umurnya?
- ④ Sani : Iya, beda. Kalau umur Korea, aku 37 tahun sekarang, tapi kalau umur internasional, masih 35 tahun. Kan ulang tahunku belum lewat. Jadi masih bisa 35 tahun... Rasanya beda banget ya 2 tahun...
- ⑤ Maria : Kok gitu?
- ⑥ Sani : Di Korea, bayi lahir sudah dihitung satu tahun. Ketika bayi masih dalam kandungan ibu, sudah mulai dihitung umurnya. Terus, setiap ganti tahun, otomatis umur bertambah tanpa menunggu ulang tahun. Jadi, tahun kemarin aku 36 tahun. Terus, tahun baru ini langsung jadi 37 tahun. Semakin tua nih...hiks hiks
- ⑦ Maria : Aduh...untung aku lahir di Indonesia, ya? Tuanya enggak secepat orang Korea.



## 우리말 풀이

- ① 마리아 :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참, 사니 지금 몇 살이야?  
② 사니 : 한국나이? 아니면 국제 나이?  
③ 마리아 : 무슨 말이야? 한국에선 다르기라도 하단 말이야? 나이 세는 게 말야.  
④ 사니 : 응, 달라. 한국 나이로 하면 37살인데, 국제 나이로 하면 아직 35살이야.  
난 아직 생일 안 지났으니까 35살이지..2살 차이가 왜 이리 크게 느껴지는지...  
⑤ 마리아 : 어째서 그런 거야?  
⑥ 사니 : 한국에서는 태어나면 바로 1살이거든. 애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이를 세는 거야. 그리고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나이를 먹어. 생일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작년엔 내가 36살이었고...해 바뀌고 바로 37살이 된 거지... 이제 늙고 있어... ㅠㅠ  
⑦ 마리아 : 후... 나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서 다행이다, 그치?  
한국 사람처럼 빨리 나이먹지않으니까

### [돋보기]

### apa

Bapak mau minum teh apa kopi? 차로 하시겠어요 커피로 하시겠어요?  
이때 apa는 'atau' '또는, 아니면' 이라는 뜻

## 바하사 써먹기

- ◆ 사모님, 늘~ 동안이시네요~
- ◆ 오래 사세요.
- ◆ 나이 들어서 그래.

- ◆ 내 나이가 어때서?

- ◆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 ◆ 나는 아직 청춘이라구.
- ◆ 그 사람 나잇값을 못하네.

Ibu, kelihatan selalu awet muda.

Semoga panjang umur.

Faktor U!

**umur** **알글자**를 따서 **팍뜨르우!**

- ① Aku enggak setua itu kok.

**나 그렇게 안 늙었는데 뭘.**

- ② Iya, aku sudah tua. So what gitu lho.

**그래 나 늙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 ③ Emang kenapa umurku? Umur bukan masalah.

**아니 내 나이가 뭐? 나이는 문제가 안 된다구.**

Umur hanya sebatas angka.

Saya masih berjiwa muda.

**berjiwa muda** **생각이 젊다**

Dia enggak sadar umur.



## 유적에 핀 꽃

-인도네시아 암바라 조선인 위안부 수용소를 다녀와서-

문인기

아침에 일찍 다져간 비는  
허물어져 가는 벽에서 눈물로 흐르고  
슬픔의 한이라도 서린 듯  
오래 닫힌 방에는 한 줄기 빛이 관통한다.

비라도 오지 않았다면  
시류로 메말라가는 순계자로서는  
슬픈 역사를 찾기보다는  
풍상의 흔적을 벽돌에서 찾으리라.

전쟁의 상흔인가  
본래가 피 색인가  
비에 젖은 벽채는 피처럼 붉어도  
창문은 한 폭의 캔버스가 되었다.

아이비가 감아 덮는 유적  
그 사각의 벽 정점에  
별같이 모여 핀 보라색 꽃무리  
메마른 가슴의 눈으로도 알아본다.

혹여나 유적의 내력을 들을까  
보라색 길은 꽃향기라도 품어낼까  
카메라를 들고 다가간 순례자에게  
꽃은 슬픈 눈으로 웃는다.

## 블랙핑크의 임팩트



(학생기자 JIS 신재우)

최근에 YG회사의 대표적인 여자 아이돌 그룹인 블랙핑크가 인도네시아에 와서 ICE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19일에서 20일까지 2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인도네시아에서 공연을 하면서 아주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티켓가격은 자리 배정에 따라서 백십만 루피아에서 이백오십만 루피아까지 팔렸으며,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티켓들은 대부분 만석이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주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그 인기의 비결을 알기위해 학생기자로서 지스에서 외국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것을 알아봤습니다.

**질문: 블랙핑크를 압니까?**

학생1: 한국에 있는 유명한 아이돌 그룹입니다.

학생2: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그룹입니다.

**질문: 주위에 블랙핑크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학생1: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중국계 인도네시아 여자입니다.

학생2: 저희 가족 전체가 알 정도로 유명합니다.



**질문: 당신은 블랙핑크를 좋아합니까? 만약에 좋아한다면 그 이유는?**

학생1: 좋아합니다. 특히나 그들의 음악은 아주 좋습니다. 멤버들이 노래에 각각 중요한 요소들을 맡으면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빠르고 신나는 멜로디와 비트는 노래에 더욱 더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학생2: 너무 좋아합니다. 멤버들 모두가 매우 아름다우며 좋은 성격들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그들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좋아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지스의 외국 학생들도 블랙핑크를 알면서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블랙핑크 덕분에 외국 사람들은 한국의 다른 요소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중문화를 앞세운 한국에 대한 호감이 앞으로도 계속 되길 기대해 봅니다.

블랙핑크 공연 포스터



## “기업시민, 무엇을 할 것인가?”

# 제 2부 『고통로용(Gotong Royong)의 길을 닦다』

글: 코린도 사회공헌재단 이순형사무총장

# 프롤로그 : 땅에 떨어진 루피아의 가치, 땅에 떨어진 삶의 질

외환위기 시절, 달러를 루피아로 바꾸기 위해 환전소 앞에 줄을 서 있었던 기억이 난다. 환전하고 가는 사람에게 들은 환율과 내가 바꿀 때의 환율이 달랐다. 요동치는 환율 때문에 생긴 일화를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 루피아의 1달러당 가치는 3분의 1까지 폭락했다. 그래서 루피아로 월급을 받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곤궁한 삶을 살아야 했다. 생필품과 공산품 값은 두 배 넘게 뛰어올랐고, 그나마도 그 값이 언제 오를지 몰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재기를 했던 사람도 나는 보았다.

수많은 도산, 대량 해고...

IMF로 인한 인도네시아 서민들의 불행은 대한민국의 IMF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장의 실직과 가계 파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속출했다.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짊어진 학생들이 빈곤의 악순환에 들어서기 전에 도와야 했다.

코린도 장학재단 회의실에서 내려진 결정은 다음과 같았다.

‘인도네시아가 어려울수록 장학재단 같은 기업의 후원이 더욱 절실한 때다. 이런 때야말로 우리 재단이 설립된 취지에 맞게 활동을 개진한다. 좀 더 빨리 장학금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서두르자’

남들은 하던 것도 잠시 주춤할 때, 우리는 새로 시작했다. 이런 때야말로 기업이 나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코린도 장학재단이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던 것이다.

인도네시아 교육부와 협력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학재단 산하

에 국립 대학교 총장, 교육부 고등교육담당 청장, 메단의 사범대학 총장, 그리고 코린도 장학재단 이사장 4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결성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전달에 만전을 기했다.

1998년부터 시작된 대학생 장학금 혜택 사업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현재까지 지속된 이 장학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총 727명에 달한다. (표 1) 또한 보다 양질의 교육을 지원한 “코린도 학사&석사 프로그램”도 있었다. 2003년부터 시작된 한국 명문대의 교환학생 지원과 더불어 MBA 과정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1년에서 3년까지 학업 기간만큼 학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그렇게 코린도의 “학사&석사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총 34명으로 현재까지 280,000 달러의 유학자금을 지원했다.

대학	장학금 수혜 인원	장학금 지급액 (단위: Rp1,000)
UI	195	610,000
IPB	238	554,000
Unpad	136	373,000
UGM	70	232,000
Unas	70	235,000
UPI	15	75,000
ITB	3	9,000
합계	727	2,088,000

<표1> 코린도 장학 프로그램 (1998년부터 2018년 현재 누적)

또 한편, 코린도 장학재단과는 별개로 우리 회사의 각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각자가 지역 주민들의 아이를 한 명씩 책임지고 교육비 지원을 하는 자발적인 캠페인도 벌였다.



그 캠페인을 우리는 “교육 대부(代父)”라 불렀다. 대학교까지 학비를 지원하는 직원들도 있었고,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아이들을 돕는 직원들도 있었다. 우리는 그때 저마다 마을의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마음과 또 낙후된 환경에서도 교육의 기회를 잃어선 안 된다는 마음뿐이었다. 우리나라는 폐허가 되어 먹고 살 것이 없는 전쟁 때에도 천막을 치고 공부를 했던 민족이었다. 전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최단시간이 걸렸던 건,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 생각은 ‘교육대부’를 실천하던 우리 모두 공감하던 바였다.

문명의 혜택도, 정보의 공유도 적었던 인도네시아 낙후된 지역을 우리가 모두 구제할 순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산기지로 자리 잡았던 지역만큼은 도울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아주 간단한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었다. 지금에 와서야 생각해본다. 웃으며 학교를 다니던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탄탄한 직장에 다니고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사람으로 잘

성장했을까, 혹시 그 아이가 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 그러다 문득 고개를 젓는다. 나를, 그리고 우리 코린도를 기억하지 않아도 좋았다. 당시엔 그런 의도로 후원했던 게 아니니까 말이다.

다른 직원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때, 아이가 학생이 되고, 학생이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당시 우리들의 모습 같다고 느꼈던 적이 많았다. 밀림 속에서 길을 내고, 공장과 숙소를 짓고, 학교를 세우며 마을을 만들며 회사를 성장시켜 나갔던 우리들의 모습 말이다. 우리는 그때 아이들과 함께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해 나갔던 것이다.

그렇게 지역 계열사들은 현지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자체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시행해왔다. 모두 자생적, 자발적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현지 상황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몇 개의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었다는 점이다. 바로 교육, 건강 및 의료, 환경, 인프라, 일자리 창출의 5가지다.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학금 수혜자 8,792명 (초등~대학교)</li> <li>▶ 오지 지역의 28개 학교 건축 및 운영 지원 / 208명의 교사 지원</li> <li>▶ 109개의 유치원 및 중등교육시설에 학습 교보재 제공</li> <li>▶ 낙후 지역에 36대의 통학 버스 운영</li> </ul>
건강 및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의 종합병원과 19개의 클리닉 건설</li> <li>▶ Daharmais 국립 암센터 건립 기부금</li> <li>▶ 5세 이하 아동 4,680명을 위한 건강보조제 기증 (72개 아동의료센터)</li> <li>▶ 오지 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li> <li>▶ 자연 재해 발생 시 긴급 구호 약품 및 식사 기증</li> </ul>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르 농업연구센터에 10만 그루의 인도네시아 원목기증</li> <li>▶ 221,600그루 조림</li> <li>▶ Pancoran 지역 초·중·고등학생의 환경 교육을 위한 쓰레기통 기증</li> <li>▶ 강변 유역 주민 2,660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등</li> </ul>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51km의 도로 건설      ▶ 80개의 다리 건설</li> <li>▶ 66개의 종교 시설 건설   ▶ 낙후 지역에 8MW 전력 공급</li> <li>▶ 13,350명의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 제공</li> </ul>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300명의 직접 고용 및 21,000개의 일자리 창출</li> <li>▶ 파푸아 보벤디굴&amp;머라우께 450개의 자영업자 지원</li> </ul>

<표2> 코린도 계열사업본부의 지역 사회공헌 활동

다섯 가지 분야로 나뉜 우리의 사회공헌 활동은 실제 단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됐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환경들을 개선해보자’였다.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인프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의료 환경 개선, 더불어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교육 환경 지원과 생물학적인 환경 개선으로 확대해 나갔다. 한마디로 우리 회사의 사회공헌은 첫째도 환경, 둘째도 환경이란 의미다. 그 동안 우리가 해왔던 사회공헌 활동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 계열사가 더 활발해 보이는 우리만의 이유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7년, 세계 최초로 CSR을 의무화한 나라다. CSR이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약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한다. CSR의 핵심 개념은 ‘기업시민, 지속가능성’

에 있다. ‘기업 시민’은 기업도 일반 시민과 같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다. 일반 시민이 세금을 내고,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보호를 받는 것처럼 기업도 사회공헌과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나왔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그 이전부터 기업에게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란 요구를 해왔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무려 1994년부터다.





수하르토 정부는 1994 ‘짐바란 선언’을 통해 인도네시아 빈곤퇴치를 위해 총 96개 재벌에게 수익의 2%를 사회에 기여하도록 요구했던 것이다. 그때 인도네시아 현지 및 외국계 기업들은 비영리재단을 서둘러 설립했다. 이후 자선 활동, 지역사회 개발 지원, 환경보호와 같은 CSR 영역의 활동들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기업 재단의 CSR활동들은 대체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이 나오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환경 아래 기업의 지원들은 적재적소에 닿지 못했던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특히 교육부문과 지역 계열사 중심의 직접 지원을 고수했던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사실 일정 금액을 기탁하고 돌아서도 무방했지만, 그 지원이 과연 꼭 필요한 현장에 제대로 도착하는지 끝까지 추적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는 손길을 내민 그 곳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인도네시아에도 우리와 거의 똑같은 사회규범이 있다. 바로 “고통 로용(Gotong Royong)”, 상호 협력이란 뜻이다.

우리의 상부상조, 혹은 품앗이와 비슷한 그 문화

는 인도네시아에 사회적 기부와 나눔이 일상화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4년부터 기업에게 책임을 다하라는 선언도, 세계 최초로 CSR을 법제화 것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기업을 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무조건적인 자선행위가 수혜자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또한 CSR을 이용해 기업의 이미지 회색에 이용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적지 않다. 이제 또 다른 개념의 기업 시민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코린도가 내년이면 반세기에 접어든다.

그 세월은 기업의 질적, 양적 성장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다. 남의 나라에서 기업을 시작해 흔들림 없이 성장했던 인도네시아의 기업시민이 되기 위한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닦아온 고통로용의 길은 선의에서 시작해 도덕적 의무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선의와 도덕적 의무에 한계가 오기 전, 우리는 지속 가능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고민해야 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3부에 계속)

## 더 넓은 세계로



JKS 9학년 차정민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2월 자카르타 한국 국제학교 중학교(JKS)를 졸업하고, 24기 민족사관 고등학교 신입생이 될 차정민입니다.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축하를 받게 되고, 이런 글을 쓰게 되어 이제서야 합격된 것이 실감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뉴질랜드에서 JKS로 전학을 오면서, 처음으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한국인다워지는 것이 너무 즐거워 한복을 입고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그 행복했던 기억에 웃음이 납니다. 친구들이 때로는 놀리고 이상하게 보기도 했지만, 평소 사극을 좋아했던 터라 드라마 속 주인공 공들처럼 한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좋았고, 한국 말로 대화하는 친구들과 한국 수업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신 JKS에서의 생활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때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 학교를 알게 되었고, 그곳은 대한민국의 수재들이 들어간다는 한국 민족사관 고등학교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복으로 한복을 입고, 서예와 가야금, 국궁을 배우며, 학생자치공화국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자립형 사립 기숙 고등학교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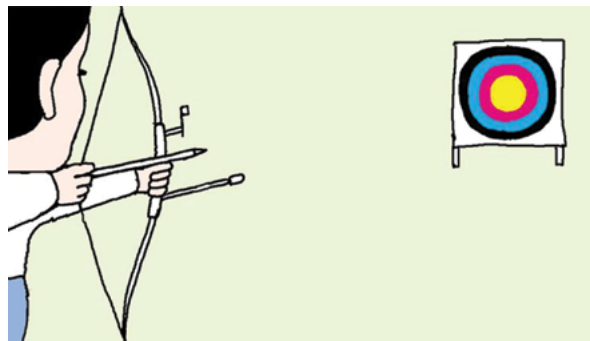
“내가 이 학교를 갈 수 있을까? 갈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

대한민국 1%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는 민족사관 고등학교는 저의 꿈의 학교였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조국에서 살고 싶다는 꿈만으로 도전하기에는 너무 높고 뛰어넘기 힘든 목표였지만, 차근 차근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원 방법과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족사관 고등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1차 서류 평가로 중학교 내신 성적이 상위 1%여야 하며, 그 후 2차 평가는 총 5개 분야 즉, 수학, 영어, 인성, 사회, 국어의 면접으로 총 100분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내신은 1차 기준을 갖추고 있었지만, 2차 면접 시험이 걱정이었습니다. 면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최상위권 수준의 학업 능력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한국의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학실력이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수준의 수학은 JKS에서 한국 교육과정으로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지만, 고등학교의 수학1과 같은 경우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6개월 정도 특히 고등 교육과정 수준의 수학에 몰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초는 다져져 있었기 때문에 매일 정해진 양의 수학공부를 하고, ‘수학의 정석1’ 까지 수학 개념 노트를 만들어 모든 수학의 원리 및 개념을 다시 쓰고 정리하였으며,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 준비를 위해 인터넷으로 정보를 모으고, 꾸준히 책을 읽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훈련했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그리고 JIKS의 학교 수업과 수행평가는 그 연습했던 발표 능력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들이었습니다. 특히 발표수업을 자주 했던 정선화 선생님의 역사 수업이나 한혜진 선생님의 국어 수업은 면접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국어 면접에서 좋아하는 시를 감상하는 것이 질문이었으며, 저는 국어 수행평가로 발표한 적이 있던 김춘수 시인의 ‘꽃’을 분석 및 감상을 답변함으로써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렵고, 실패할 확률이 높은 위험한 도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12년 특례라는 금수저를 버려야 했지만,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제 목표로 삼았고 앞만 보고 노력하면 적어도 그 노력한 시간만큼 얻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로 그리 자유롭게 외출을 하거나,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 따위는 없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만약 주변의 기대에 못 미치면 어찌할까’와 같은 생각들이 늘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생각에 쫓겨서 공부를 하기보다 준비하는 과정 자체를 스스로 집중력, 인내심 등의 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기회로 삼자고 여기며 순간순간을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하며 끝까지 달렸습니다.

지금도 합격의 사실이 저에게는 벅찬 기쁨이며, 앞으로 3년간 펼쳐질 미래에 대해 기대 반 불안 반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며,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해야 하는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멋지게 해낼 수 있도록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5년간 서예를 가르쳐 주시며 한국인의 길을 가르쳐 주신 인재 손인식 선생님과 가야금을 가르쳐 주신 조은경선생님, 정선희 선생님, 그리고 직스의 9학년 김지운 선생님과 이찬욱 선생님, 8학년 백형균 선생님, 7학년 장미란 선생님, 6학년 김상기 선생님, 5학년 이현아 선생님과 초등학교 송삼순, 김미선 선생님, Mr. Ian, Mr. Mark, Mr. Ben 선생님 등 끝없이 저를 응원해주시고 용기를 주신 은사님들과 직스의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JIKS의 후배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혜택일 수 있고, 금수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고 더 큰 도전을 해보려는 용기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JIKS에서 저와 같은 용기 있는 도전을 해내는 후배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인도네시아 회사법 (16)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 7.23. 회사에 대한 조사소송청구

7.23.1.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주 혹은 제삼자가 피해를 입었거나, 이사 회원 혹은 감사회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 주주 혹은 제삼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총 발행 주식의 10%이상을 가진 주주, 주식회사법, 정관 혹은 회사와 약정에 의해 권리가 부여된 자, 혹은 공익 보호 차원에서 검찰은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 혹은 설명을 얻기 위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회사에 대한 조사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수년전에 한국의 대기업이 인도네시아 측과 합작투자자로 현지에 설립한 외자투자법인이 현지인 주주로부터 배당 문제로 회사조사 피소를 당한 사례가 있다.

7.23.2. 신청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자료 혹은 설명을 요구했으나 회사에서 거부한 경우에 한한다.

## 7.24. 해산. 청산. 법인자격 소멸

### 7.24.1. 해산 사유

7.24.1.1.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7.24.1.2. 정관에 규정된 회사 존속 연한 종료

7.24.1.3. 법원의 해산 명령서

7.24.1.4. 파산 재산 부족으로 파산경비 지불이 불가하여 상업법원의 파산 선고가 취소된 경우

7.24.1.5.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재산이 지불 불능 상태에 돌입한 경우

7.24.1.6. 회사의 사업허가서가 취소되고 관계 법규에 의하여 해산해야 하는 경우

7.24.2. 해산이 결정되면 청산인 혹은 관재인에 의해 반드시 청산을 해야 하며, 청산에 관련된 업무 이외의 모든 업무 수행을 금한다.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청산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원, 감사회원 및 회사가 연대책임을 진다.

7.24.3. 해산 결의 후 청산이 완료되고 청산인의 청산 보고서를 주주총회 혹은 법원에서 승인해줄 때까지 회사의 법인 신분은 존속된다.

7.24.4. 지방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사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7.24.4.1. 회사가 공익을 위배했거나 불법행위를 한 이유로 검찰이 회사 해산을 신청한 경우

7.24.4.2. 회사 설립 정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해산 신청에 의거

7.24.4.3. 주주,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이 회사를 계속할 수 없는 이유로 해산을 신청한 경우

7.24.5. 해산 결정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회사 해산을 신문 및 관보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동시에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24.6. 신문 및 관보에 공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24.6.1. 해산 및 해산 결정 근거

7.24.6.2.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7.24.6.3. 채권 신고 방법 및 신고 기간

7.24.7. 채권 신고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60일이다.

7.24.8. 청산인의 파산선고 청구의무  
청산인의 판단에 부채가 재산보다 더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청산인은 회사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 선고 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규상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주소와 신분이 파악된 모든 채권자가 파산선고 없이 청산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7.25. 주주의 무한책임 귀책 사유

주주의 책임은 주식 액면 가액 내에서의 유한 책임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주주는 무한책임을 진다.

7.25.1. 회사가 법인 자격을 획득하지 못 했거나 법인 자격 획득 조건 미달 시

7.25.2.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주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회사를 이용한 주주

7.25.3. 회사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관련된 주주

7.25.4.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불법한 방법으로 회사자산을 이용하고 그 결과로 인하여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고 회사 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충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주주

7.25.5. 단독 주주가 된지 6개월이 지났으나 주식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않아 계속 단독 주주의 상태인 경우

### 7.26. 기존 주식회사에 대한 경과 규정

7.26.1. 2007년 주식회사법 발효 시 정관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미 승인을 얻었으며 회사 등록을 필했으며 정관의 내용이 2007년 주식회사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계속 유효하다.

7.26.2. 2007년 주식회사법 발효 시 아직 법인 자격을 획득하지 못 했거나 개정된 정관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 했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가 되지 않은 정관은 2007년 주식회사법에 맞게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7.26.3. 상법 혹은 1995년 주식회사법에 의거 법인 자격을 이미 획득한 회사는 2007년 주식회사법 발효일(2007. 8. 16.)로부터 1년 이내에(2008. 8. 15.) 회사의 정관을 2007년 주식회사법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7.26.4. 상술한 “3” 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는 검찰 혹은 이해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한 지방법원의 허가로 회사를 해산할 수 있다.

7.26.5.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2007년 주식회사법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매각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 김정호, 시대의 풍랑 속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집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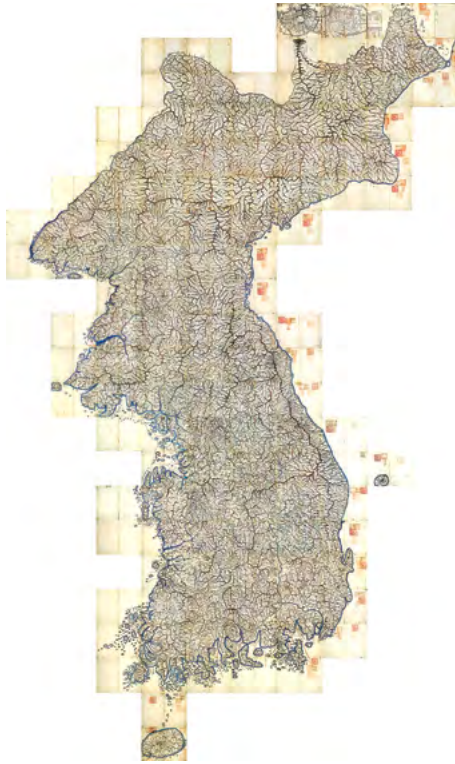
3.8m X 6.7m에 이르는 크기. 하지만 세로로 22단으로 잘라져 있고 가로로는 병풍처럼 접을 수 있어서, 책지 형태로 접으면 약 20cm x 30cm 정도로 갖고 다니기 편함. 모눈을 그려 축적을 표시한 지도로 정확성과 정밀함이 지금의 지도와 크게 차이나지 않음. 지도상의 읍성, 산성, 창고, 봉수 등을 간략한 부호로 표현하여 알아보기 편함. 목판본으로 제작하여 대량 생산가능, 이렇게 정확성, 실용성에 아름다움까지 갖추고 있는 조선시대 최고의 지도 (대동여지도) [보물 제 850호]를 만든 사람이 김정호이다.

## 김정호에 대한 상식

김정호라 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어린 시절부터 산과 물의 모양에 관심이 많았던 소년이 어렵게 구한 지도를 들고 실제 모양과 비교해 보았는데 그 내용이 실제와 너무 달라 실망한 뒤, 직접 자신의 손으로 지도를 만들기로 결심했다는 것, 그 뒤 평생을 바쳐 조선팔도를 세번 돌아다니고 백두산을 여덟 번 오른 뒤에 완성한 것이 《대동여지도》라는 것, 그러나 그 지도를 본 대원군이 나라의 비밀이 다른 나라에 누설될까 우려하여 지도판을 압수하고 김정호를 옥에 가두었으며 결국 김정호는 옥중에서 죽었다는 내용들이다. 이 이야기는 수십 년 동안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많은 사람들의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이 내용들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김정호에 대해 알려진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김정호는 불과 150여 년 전 인물인데도, 생몰년 대조차 정확히 알려져있지 않다. 그가 살았던 당시의 기록들 서너 군데에서 김정호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는데, 그나마 가장 길게 전하는 것이, 하층 계급 출신으로 각 방면에 뛰어난 인물들의 행적은 모은 『이향건문록』이다. “김정호는 자기 호를 고산자라 하였다. 그는 본디 공교한 재주가 많았고 특히 지도학에 깊은 취미가 있었다. 그는 두루 찾아 보고 널리 수집하여 일찍이 《지구도》를 제작하고, 또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는데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새겨 인쇄해 세상에 퍼냈다. 그 상세하고 정밀한 것은 고금에 그 짝을 찾을 수가 없다. 내가 한질을 구해 보았더니 진실로 보배로 삼을 만한 것이었다. 그는 또 『동국여지교(대동지지)』 10권을 편집했는데 탈고하기 전에 세상을 떴으니, 정말 애석한 일이다.” 『이향건문록』 김정호편의 전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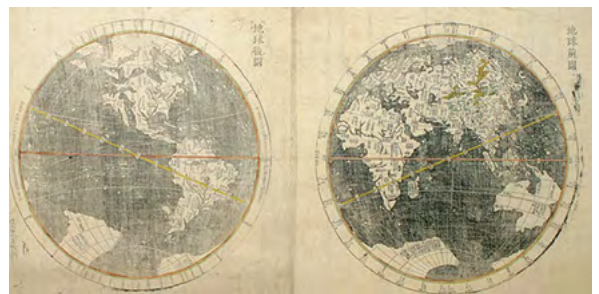
01. 《대동여지도》 김정호가 국내외의 다양한 자료들을 두루 연구하고 그 장점들을 집대성하여 만든 조선시대 최고의 지도이다. ©문화재청

## 과장되고 왜곡된 이야기들

이후 한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대동여지도》와 김정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낸 사람은 최남선이다. 최남선은 1925년 《동아일보》에 「고산자를 회懷함」이라는 글을 써서 김정호를 소개했는데, 이 글에서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위해 김정호가 전국을 답사했으며 백두산을 일곱 번이나 올랐고 수십 년을 떠돌아다녔다고 적었다.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바로 3년 뒤에 『별건곤』에 「고산자의 대동여지도」라는 글을 쓰면서는 백두산을 세 번인지 네 번인지 올라갔었다고 하여 한 발 뒤로 물러선다. 당시만 해도 백두산을 일곱 번 올랐다는 말이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조선 팔도를 세번 돌아다니고 백두산을 일곱 번 오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정호의 신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족보가 전하지 않고 『이향견문록』에 실려 있는 것 등을 보면 중인 이하로 추측된다. 당시의 교통상황이나 중인의 재력 등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또 굳이 백두산을 일곱번이나 오르는 것이 지도를 만드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도 의문이다. 아마도 최남선은 김정호 개인의 노력을 부각시키려고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했던 듯한데, 이후 이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어린이잡지를 통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더 극적인 내용으로 각색되었고, 이것이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어독본』에 이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면서, 김정호에 대한 상식으로 굳어졌다. 그 과정에서 백두산을 여덟차례나 올랐다고 과장되고, 《대동여지도》를 본 대원군이 나라의 비밀을 누설한다며 지도판을 압수하고 김정호 부녀를 옥에 가둬 죽게 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덧붙여졌다. 그렇게 김정호의 이야기는 만들어졌다.



02. 《지구전후도》 김정호가 중국의 《지구도》를 모방하여 만든 목판 인쇄본 세계지도이다. 이를 통해 김정호가 도서관 소속의 목각기술자였을 거라 추측하기도 한다. ©e뮤지엄



03.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김정호 초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 04. 《대동여지도》는 조선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해오던 지도표를 명확하게 예시하고 도로를 나타낸 선상에 10리마다 점을 찍어 거리를 표시했다. ©문화재청

## 발로 쓴 지도가 아니라 자료로 쓴 지도

그렇다면 실제의 김정호는 어떻게 《대동여지도》를 만들었을까? 앞에서 살펴본 『이향견문록』에 “두루 찾아보고 널리 수집하여” 라는 부분, 그리고 김정호의 벗이며 지원자이기도 했던 철학자 최한기가 남긴 “나의 벗 김정호는 소년 시절부터 지리학에 뜻을 두고 오랫동안 자료를 찾아서 지도 만드는 모든 방법의 장단을 자세히 살펴며, 매양 한가한 때에 연구 토론하여” 라는 글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잘못 전해진 김정호의 이야기에 소년 김정호가 어렵게 구한 지도를 살펴보니 실제와 너무 달라 실망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사실 조선은 지리학이 발달한 나라였고 앞선 연구들도 있었다.

세종 때 만들어진 천문관측 기구들은 조선의 지도학 발달에 영향을 주었고 세조 때에도 지형을 측량하는 기구들이 개발되었다.

또한 김정호 이전에도 나홍유, 양성지, 운영 같은 지도제작자가 있었고, 정상기, 홍대용, 신경준 같은 지리학자들이 있었다.

김정호는 이런 연구들과 함께 중국 자료들까지 두루 연구하고 그 장점들을 집대성하여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분이 높지 않았던 김정호가 이런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었다. 당시 유명한 장서가였던 최한기와 흥선대원군 집권 당시 훈련대장을 역임했던 신헌 등이 김정호의 지인들로, 두 사람 모두 지도와 지리학에 관심이 많았고 김정호의 재주를 아꼈던 인물들이다.

또한 김정호가 《지구전후도》, 《수전전도》를 비롯해 《대동여지도》도 직접 판각한 뛰어난 각수였다라는 기록을 통해, 도서관 소속의 목각기술자였을 거라 추측하기도 한다. 인쇄를 관장하는 도서관 소속이었다면, 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했을 것이다.

## 평생을 지리학에 바치다

소년시절부터 지리학에 뜻을 두었던 김정호의 첫 작업은 지도가 아니라 지리책이었다. 1834년

『동국여지승람』에서 지리정보를 정리한 뒤 처음 만들어진 때와 달라진 정보들을 보완하여 『동여도지』 22책을 썼고, 이를 근거로 《청구도》(보물 제1594호)라는 전국 지도를 그렸다. 《청구도》는 현존하는 고지도 중 가장 크기가 크며, 중국에서 수입한 『기하원본』을 통해 서양의 확대축소법을 받아들여 앞서 제작된 어떤 고지도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동여도지』를 보완하여 『여도비지』(20책)라는 지리지를 완성한 김정호는 이것을 근거로 1857년 《동여도》(보물 제1358호)를 그렸다. 김정호가 그린 지도 중에서 가장 자세하다는 이 지도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보다 간략하게 표현하고 목판으로 판각한 것이 《대동여지도》이다.

《대동여지도》의 목판을 완성한 것은 1861년. 처음 지리지를 완성했을 때부터 계산하더라도 28년이나 걸렸으니, 그 작업시간까지 염두에 둔다면 30년이 넘는 동안 김정호는 보다 정확하고, 보다 편리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 애써온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대동여지도》를 완성한 이후에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동지지』 15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쓰기 위해 중국 책 22종과 조선책 43종을 인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에게 지리지와 지도는 한쌍의 작업이었다. 지리지를 연구하여 축약된 정보로 지도를 그렸고, 지도를 그린 뒤 지도에 다 표시하지 못하는 지리적 정보들을 지리지에 담았다.

조선팔도를 세 번 돌고 백두산을 여덟 번 올랐다고 과장하지 않아도, 소년 시절부터 수십 년 동안 지리학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며 차근차근 그 성과를 정리하고, 점차 완성도를 높여나간 그의 끈기

와 노력은 충분히 기억하고 칭찬할 만하다. 더구나 당시는 지리학이라는 것이 개인의 부와 명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사회였다.

국가와 사회가 그 어떤 도움도 보상도 해주지 않았던 일을 평생동안 끈기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확하고 실용적인 지도가 국가와 민생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김정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여도》에 부록으로 실려 있는 「지도유설」에서 김정호는 이런 글을 남겼다. “지도에 정통함은 군사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국방을 위하여 정확한 지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산천의 상황, 물길의 유무, 경작하는 땅의 위치를 확인하면 생산을 늘리고 삶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글.윤희진 (역사저술가)



05

05. 《청구도》(보물제1594-3호). 김정호는18세기 말부터진행되어왔던 기존 지도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노력에 공감하고,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 나름의 독창적인 생각을 반영하여 청구도를 제작하였다.

©문화재청



한인니문화연구원(원장 사공경)은 지난 1월 19일 10시부터 57회 열린강좌를 진행했다. 서울대 이인성교수를 초청해 ‘지구의 뜨거운 숨결과 맥박’이라는 제목으로 화산과 지진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의 깊이 있는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분들이 화산과 지진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인성교수는 100장 정도의 PPT로 성실하게 강의를 했다. 시간관계 상 다루지 못한 <숨어 있는 지구의 보고: 마그마 활동과 연관되어 인류 문명의 기초가 되는 소중한 광물자원의 생성>에 관한 내용도 함께 신고자 한다.

강의 내용 요약문은 아래와 같다.

지구상에는 많은 화산(Volcano)들이 존재한다. 베수비오 화산과 같이 폭발적인 재해를 가져오기도 하고 하와이의 화산들처럼 붉은 용암이 바다로 흘러드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11월 발리의 아궁화산이 폭발한 적이 있고, 2018년 9월에는 중부 술라웨시에서 지진과 쓰나미(Tsunami)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2018년 12월에는 순다해협 양측 해안에서 쓰나미가 발생하는 등 세계 어느 곳보다도 자연 재해의 영향이 큰 곳이다.

마그마(Magma)는 지구 표면 아래에 존재하는 용융된 암석을 칭하는데 이러한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분출된 것을 용암(Lava)라고 한다. 화산은 이러한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분출된 것이며 마그마는 지하 50-250 Km 깊이에서 유래된 것이다. 마그마의 점성(viscosity)이 높을수록 더 강력한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 화산의 폭발 정도는 마그마 온도, 마그마 조성, 포함된 가스의 양에 의존한다. 마그마 내 규소 성분이 높을수록, 점성이 높을수록, 가스함유량이 많을수록 더 폭발적인 경향을 보인다. 마그마 점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마그마온도, 마그마 내 실리카(SiO<sub>2</sub>)의 양, 마그마 내 광물 결정(Crystal)의 양이다. 마그마는 현무암질(Basaltic), 안산암질(Andesitic), 유문암질(Rhyolitic) 마그마로 분류될 수 있으며 현무암질 마그마는 고철질 성분이 풍부하고 온도는 1000-1200℃로 낮은 점성을 가지며 굳으면 현무암이 된다. 안산암질 마그마는 그 조성 and 점성에서 염기성과 규장질 마그마의 중간 정도 값을 보이며 굳으면 안산암이 된다. 유문암질 마그마는 규장질 성분을 가지며 온도는 800-1200℃로 높은 점성을 가지며 굳으면 유문암이 된다.

용암은 파호에호에, 아아, 베게용암, 블록용암 등으로 분류된다. ‘파호에호에’ 용암은 점성이 낮은 현무암질 용암으로 매끄럽고 끈적끈적한 느낌의 표면을 형성한다. ‘아아’ 용암은 점성이 높은 현무암질 용암으로 날카롭고 뾰족한 모서리 있는 표면을 가지고 있다. 베게 용암은 수면 하에서 분출되어 통통한 베게 모양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블록 용암은 안산암질 성분을 갖고 있고 ‘아아’ 용암보다 점성이 높으며 훨씬 규소 성분이 높고 층상화산(Stratovolcano)에서 흔히 관찰된다. 화산쇄설물(Pyroclastics) 화산 폭발 시 대기 중으로 분출되어 나온 물질들로 입자크기에 따라 화산재, 라필리, 화산탄으로 구분된다. 화산쇄설물이 고화되면 응회암(volcanic tuff)을 형성한다. 현무암질 용암은 비교적 완곡한 분출 경향을 보이며 유문암질-안산암질 용암은 격렬한 분출 성향을 보인다. 화산의 유형은 층상화산(Stratovolcano; 복합화산:composite volcano), 순상화산(Shield volcano)로 나눌 수 있는데 순상화산은 분출이 격렬하지 않아서 수차례 분출하는 경향이 있으며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하와이의 ‘마우나로아’가 순상화산에 속한다. 층상화산은 흘러내리는 용암과 폭발에 의한 화산쇄설물들이 교대로 쌓이는 형태를 보이며 순상화산의 경우

보다 실리카 성분이 높고 경사면도 가파르게 생성된다. 일본의 ‘후지산’이나 미국의 ‘세인트헬레나’ 화산이 이에 속한다.

판구조론(Plate Tectonics)은 오랜 세월동안 축적된 과학적인 증거들(화석, 고지자기역전 기록, 극자기 이동, 해저지형, 해양지각연령, 해저확장 등)을 바탕으로 오랜 지구 역사상 일어난 지각권의 이동 과정과 메커니즘, 판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질현상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지각은 20개 정도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7개의 주요 지판) 연약권위에 놓인 지각권 판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판은 연간 약 15-100 mm 정도 이동하며 조금 빠르게 이동하는 Nazca Plate 경우에는 연간 약 150 mm 정도 이동하고 있다. 이들 판들의 경계는 발산경계, 수렴경계, 변환단층경계로 나눌 수 있으며 지표면에 나타나는 화산활동과 지진의 발생 등을 이러한 판의 이동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수렴경계의 예로는 일본 열도, 안데스산맥, 히말라야 산맥들을 들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산안드레아스 단층대는 변환단층의 대표적인 예이다. 발산경계로는 중앙해령을 들 수 있다. 90% 이상의 화산활동은 판 경계부에서 발생하였고 나머지 10%는 열점(Hot spot)에서 발생하였다. 80% 이상의 마그마 분출은 해양의 확장부(발산경계: 중앙해령)에서 발생하였고, 섭입대에서는 대략 7-13%의 마그마만 분출되었다. 열극분출(Fissure eruption)은 발산경계의 대표적인 분출 양상이며 열점 화산작용도 해저나 육지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가 열극분출의 한 예가 될 수 있으며, 열점분출의 잘 알려진 예로는 하와이 열도를 들 수 있다. 열점은 맨틀 플룸의 형태로 상승하게 되는데 용암대지나 범람현무암도 이러한 맨틀 플룸이 분출된 예이다.



지구상 생물의 멸종과 범람현무암 분출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지난 4억년간 속의 20% 이상이 사라진 12번의 멸종이 있었고 이 중 4회는 40%이상의 대량 멸종에 해당된다. 그리고 지난 4억년간 상당량의 범람현무암이 분출한 12번의 시기가 존재하고 이 중 4회는 대륙의 상당 부분을 피복할 만한 대규모 분출이었다.

지구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활동은 화산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 175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일어난 리히터 규모 9의 지진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역사적 사건이었다. 지진은 에너지의 단시간적인 방출에 의하여 야기되는 지구의 진동이다. 에너지는 진원(Focus)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방사되는 파동이며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다. 지진은 보통 지각에 존재하는 단층대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단층을 따라 일어나는 움직임은 판구조론에 의하여 적절히 설명될 수 있다. 판경계부(중앙해령지역, 변환 단층지역, 해구와 판의 섭입지역)를 따라 일어나는 지진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핵실험, 건물의 붕괴 등을 들 수 있으며 단층대의 양쪽부분이 지구조적인 힘에 의하여 변형되면서 지각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미끄러지면서 시작된다. 1906년 일어난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은 대표적인 예이다. 지진파에는 P파, S파, 표면파가 있으며 이들 전파 속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진앙의 위치와 지구의 내부 구조를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지진은 판 경계부에서 일어난다. 지진의 강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단위는 메르칼리 스케일, 리히터 스케일, 모멘트 스케일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강하고 치명적인 지진은 수렴 경계를 따라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판경계부가 아닌 판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1811-1812년에 일어난 '뉴마드리드지진'이나 1886년 일어난 '찰스톤지진'

이 그 좋은 예이다. 진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는 부지효과(amplified by top soil layer)를 들 수 있다. 1985에 일어난 진도 8.0의 멕시코 지진이 부지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진과 관련된 액상화(Liquefaction) 작용에 의하여 건축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해저에 위치한 단층에서의 수직적인 지반 이동이나 지진에 의하여 야기된 산사태에 의하여 쓰나미(Tsunami: 지진 해일)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안지역에서는 이러한 쓰나미에 의하여 치명적인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다.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매질의 P파 속도변화; 지반의 상하변위; 라돈가스 방출 측정; 전기비저항 측정; 작은 지진의 발생횟수변화 모니터링)들을 사용하여 지진을 예보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확한 단기 예보에는 늘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지구상에는 인류 문명의 기초가 되는 소중한 광물 및 에너지 자원들이 소장되어 있다. 이 중 광물 자원들은 화성활동과 관련되어 광물들이 생성되어 질 수 있는데 화성활동과 직접 연관되어 생성되는 마그마광상이나 열수작용에 의하여 운반, 농집되어진 열수광상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인간의 문명이 석기-청동기-철기 시대로 발전하면서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많은 비금속광물들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많이 사용되는 재료들(세라믹, 플라스틱, 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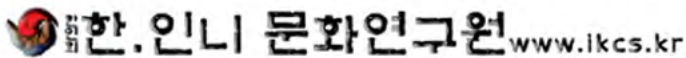


페인트 등)에는 과거 어느 때 보다는 많은 양의 비금속 광물들이 사용되고 있어 인류문명의 철기시대 다음 단계를 세라믹-플라스틱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금(Gold)의 수요는 산업용 수요가 아닌 당시의 유행과 정서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초 금 1돈(3.75gr)의 한국 내 시세는 18만 원 정도이다. 마그마의 분별정출작용에 의하여 농집되어지는 광상들에는 크롬, 철, 백금, 바나듐, 티타늄 등이 있으며, 페그마타이트 광상에서는 리튬, 베릴륨, 세슘, 니오븀 등이 주요 채광 원소가 되고 있다. 마그마와 연관되어 유용 광물성분을 농집시키는 열수광상은 마그마내에 용해되어 있던 물이나 지각내 깊이 순환하는 강수 혹은 해수로부터 형성된다. 북미와 남미 태평양 해안을 따라 형성된 대규모 구리(-금) 광상들은 판의 수렴경계면을 따라 섭입하는 해양지각이 함수용융작용을 받아 생성된 마그마로부터

공급된 열수용액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주요 광상들의 밀집 부존 지역들은 생성당시 기후환경이나 판구조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결과들이다(예: 보오크사이트광상, 반암동광상, 마그마광상, 열수광상, 층준규제형광상). 지구상에 유용광물이 풍부하게 부존된 것은 골디락스 문제 (Goldilocks Problems)와 무관하지 않다. 인간의 문명발달을 가져온 금속광물의 풍부한 농집 과정에는 물이 세가지 상태(고체-액체-기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지구 표면 온도가 유지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강연을 해 주신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이인성교수(1997-현재)는 동대학교 지질환경연구소 소장과 지질박물관장을 역임하고 있다. 앞으로 1년에 네 차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지구환경과 인도네시아 지질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한인니 문화연구원 제공>



### 59회 열린강좌

## 엄은희 박사와 함께하는 특별 세미나 <공정무역 운동과 물따돌리의 만남>

공정무역의 세계적 흐름, 한국의 상황을 소개한 후, 이어서 세계 공정무역 운동에서 반딧의 물따돌리와 막스하벨라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나아가 향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한국-인도네시아 간 공정무역의 아이템은 어떤 것이 가능할지 전망해 보고자 한다.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한인니문화연구원 객원연구원

『흑설탕이 아니라 마스코바도』 『다문화와 다양성』 (공저)

● 일시: 2019년 2월 23일(토)

9:30-11:30 (강의) 11:30-13:00 식사 및 질의 응답

● 장소: 한인니문화연구원 (코리아센터 한인문화회관 1층)

● 회비: Rp 100,000 (비회원 Rp 150,000) 점심포함

● 신청: 밴드맺글 <https://band.us/n/a5a4Y6t8G9ube>

(SMS/KT) 0811-134-3162 / 0838-7834-7811 (ID:ikcskr)

# 적도의 노래

서미숙 시인의 첫 시집 『적도의 노래』가 천년의 시 0090번으로 출간되었다. 시인은 1992년 계간 『아시아문학』 해외문학 공모전에서 산문 「날개짓」으로 대상을 수상한 후, 2008년 격월간 『서정문학』에 수필 부문으로, 2012년 월간 『문예사조』에 시 부문 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했다. 저서로는 산문집 『추억으로의 여행』, 수필집 『적도에서의 산책』 등을 펴내며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서미숙 시의 주제를 세 가지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인의 현재 생활 터전인 적도 일대에 걸쳐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와 현지인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대자적 자세이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해외에 이주해 사는 경계인으로서 갖는 절대적인 외로움과 그리움, 또 생물학적인 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이다.

해설을 쓴 공광규 시인은 이번 시집에 대하여 “서미숙은 현재 자신이 이주하여 터전을 이루고 살고 있는 타국인 적도의 나라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 안에 있는 도시와 공항, 기차역, 카페 등 특정 공간을 시의 배경으로 유효하게 활용” 하며, “더불어 현지인, 즉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소외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슬쩍 엿보” 일 뿐 아니라, “현지 공간과 사람들에 대해 대자적 관심과 무한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그리고 많은 시편들이 “고국에서 멀리 떠나 살고 있는 이주민으로서 갖는 절대적 외로움과 그리움, 거기서 오는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인은 마음의 파동인 서정적 충동을 ‘야자수’ ‘깜보자’와 같은 적도에 자생하는 자연 사물에 투영시킴으로써 정서를 심화하고 나아가 그 의미를 확장시킨다. 비와 바람, 작열하는 심상의 태양을 비유 체계로 등장시키는 것도 화자의 외로움과 그리움의 농도를 더욱 짙게 만드는 시적 배경이 된다.

표4를 쓴 유안진 시인은 “갈망과 열정으로 매달려 온 시인의 글쓰기는 시인 자신의 몸부림이어서, 쏟아지는 폭우와 한 오리 바람도 우체부였으니, 두 나라에 사는 한 몸, 한 몸에 살고 있는



제목 : 적도의 노래 / 서미숙 시집  
 지은이 : 서미숙  
 펴낸 곳 : 천년의 시작  
 www.poempoem.com  
 B6(신사륙판)/ 116쪽/ 천년의시 (세트 0090)  
 2018년 12월 17일 발간/  
 정가 9,000원

두 문화의 화합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 이 시집이 태어나고야 말았을” 거라며 시적 구조와 기교에 억지가 없어 친근하고 쉽게 공감이 간다고 평했다.

『적도의 노래』는 적도의 나라인 인도네시아를 시적 배경으로 삼고 있고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현지인에 대한 애착 등이 시적으로 잘 형상화되어 있다. 더불어 고독과 슬픔과 그리움에 잠긴 화자가 다시 고독으로 회귀하는 순환적 과정은 시의 진실과 대면하려는 시인의 시적 태도이자 미덕이다. 우리는 외국 생활을 오래 하면서 오는 물리적 심리적 경계인인 시인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국경을 허물어뜨리고 인류 보편적 사랑으로 변모해 나가는 과정을 시집 속의 여러 시편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약력-

충남 예산 출생 / 단국대 응용통계학과 졸업.  
 1991년 싱가포르로 이주 / 1994년 인도네시아 정착  
 1992년 해외문학 공모전에서 산문 「날개짓」으로 대상 수상.  
 2008년 격월간 『서정문학』에서 수필로 등단.  
 싱가포르 동남아신문 《한나프레스》 신춘문에 「늦바람」 최우수상 수상.  
 2012년 월간 『문예사조』 시 부문 등단.  
 산문집 『추억으로의 여행』, 수필집 『적도에서의 산책』 출간.  
 현재> 한국수필가협회 회원 /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회장.



# 2019년 제3회 적도문학상 공모

1. 공모부문 : 시, 수필, 단편소설, 동화
2. 주제 : 해외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야기  
외국인 = 한국 이야기
3. 응모 대상 : 성인 및 만15세 이상 학생 및 청소년  
인도네시아 한국어학과 대학생 / 외국인
4. 응모 방법 : 자유시 2편 이상 / 수필 2편  
(수필 1편분량 A4 - 11포인트 2쪽내외)  
단편소설 및 동화: 1편이상  
(1편분량 A4 - 11포인트 5쪽내외)
5. 접수 기간 : 2019년 1월 25일~3월 20일(수)  
발표: 4월 15일 \*시상식은 4/27일(토)예정
6. 제출처 :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사무국  
이메일 : [spring609@naver.com](mailto:spring609@naver.com)  
문의 : +62-811-805-017 / +62-811-969-1190  
+62-812-234-7011



시상 내역 / 성인 부문		시상 내역 / 학생 및 청소년 부문	
대상 (1명)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상 - 상장 및 상금 US\$ 1,000	최우수상 (1명) (청소년 부문)	췌 아세안 대사상 (외국인) - 상장 및 부상
최우수상 (2명)	재인니한국대사상 / 재인니한인회장상 - 상장 및 부상	우수상 (4명)	민주평통상 / 재인니 한인문예총회장상 한인포스트상 / 글로벌기업문학상 - 상장 및 부상
우수상 (4명)	재인니 한인상공회의소회장상 한국문협인니지부장상 / 글로벌기업문학상 동남아신문 한나프레스상 - 상장 및 부상	특별상 (1명)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장상 - 상장 및 부상
특별상 (1명)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장상 - 상장 및 부상	장려상 (3명)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상 - 상장 및 부상
가작 (3명)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상 - 상장 및 부상		

- 대상(적도문학상)당선자는 작가등단이 인정되며 최우수상 성인 당선자도 한국문단 등단기회 부여
- 당선작은 <인도네시아문학>에 게재되며 수상자는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으로 가입됨
- 적도문학상 학생 수상자는 한국문인협회에서 발행되는 적도문학상 수상 증명서 교부

- 주의사항
1. 응모작은 지면이나 사이버 공간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창작물이어야 함
  2. 표절 및 저작권 문제가 발생될 경우 당선이 취소됨
  3. 응모작의 앞부분에 이름, 거주지,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4. 응모작은 마감기일을 엄수하며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관 :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후원 : 자카르타 한국문화원 / 재인니한인회 /  / HanInPost  
한인포스트

HANNAH PRESS / PT. CIPTA ORION METAL

# 태권도할 때 즐거워요!

## 한.인니 다문화 무지개태권도단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적극 지원

한.인니 다문화 무지개태권도단은 인도네시아 한인아버지와 인도네시아인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아버지와 일찍 이별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도네시아인 어머니와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인2세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인니 다문화 무지개태권도단원들은 자카르타 시내에서 차로 약 3시간가량 떨어진 반뜰주 땅그랑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1월부터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이곳 수련생들은 천을 직접 모아 도복을 만들어서 입을 정도로 훈련장소와 훈련용품 등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아 제대로 된 수련을 할 수가 없는 열악한 환경을 알고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이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한.인니 다문화 무지개태권도단을 방문한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천영평(47) 원장은 “열심히 태권도 수련하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 좋다.

열심히 해서 좋은 선수, 지도자로 자라주길 바라고 무엇보다 한국문화를 잊지 말고 한국어공부를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한.인니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멋진 인재들로 자라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인니 다문화 무지개태권도단 주장 최광용 선수와 부 주장 유소라 선수는 지난 전국체전 해외부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최광용 주장은 “여기는 시내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고 길도 좋지 않으며 해가 지면 치안상태도 좋지 않은 곳인데 이곳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 뭐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감사드립니다. 문화원장님 말씀처럼 인도네시아 국적이지만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한국어공부도 열심히 해서 양국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보답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WTN 월드태권도뉴스  
webmaster@w-taekwondo.com



INTERVIEW  
DI JALAN



**Mang Kodak** (48세)

NO. 2

P  
à  
n  
c  
o  
r  
à  
n  
  
사  
람  
들

2019. 1

우리 가족은 짐사람과 애가 셋인데 큰애는 가정을 꾸려 이제 8개월 된 손주가 있습니다  
모두 보고르에 사는데 주위에 한국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짐사람은 미스타 강이 사장님인 인근 한국 공장에서 2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아주 친절하시고 좋은 분으로 우리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는 15년 전부터 자카르타에서 혼자 살면서 주 2회 쓰레기 분리 수거와 분쇄 작업 돕고  
평일은 아침8시에서 오후5시까지 거리 장사를 합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면  
월 5~6백만 정도 벌어요. 그리고 2주에 한번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냅니다

소망이라면 내가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고 부지런히 살면서  
우리 애들 클 때까지 잘 돌봐주고 싶네요.

에고~ 비가 오네... 하루 40만은 팔아야하는데 반으로 딱 줄겠네요.  
이를 어찌나~ 하하하

<한인뉴스 편집국>

## 2019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 기준 : 납부일순

번호	성 명	금액(IDR)	납입연도
1	임 경 미	1,200,000	2019 ~ 2022
2	김 영 실	300,000	
3	김 주 형	500,000	
4	길 병 완	300,000	
5	최 석 일	300,000	
6	이 원 만	300,000	
7	박 화 선	300,000	
8	최 성 현	300,000	
9	전 정 우	300,000	
10	정 민 수	300,000	
11	김 영 율	300,000	
12	조 용 재	300,000	
13	김 창 근	300,000	
14	김 대 근	300,000	
15	서 미 숙	300,000	
16	하 연 수	300,000	
17	최 수 미	300,000	
18	이 국 청	300,000	
19	최 혜 진	300,000	
20	최 인 실	300,000	
21	홍 석 영	300,000	
22	이 은 진	300,000	
23	배 응 식	300,000	

## 2019 임원찬조금 납부명단

기준 : 2019.12.31 .~1.31

번호	성명 및 직책	회사명	금액		비고
			루피아	달러	
1	이희경 이사	PT. PRIME FREIGHT INDONESIA	14,049,000		
2	길병완 이사	PT. DAEYONG DUNIA SUBUR	14,030,000		
3	배응식 자문위원	PT. KORSIA BOAN PERKASA		1000	

## [한인외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실명 위기의 김모씨(53세, 끌라빠가딩 거주)에게 눈수술을 위한 수술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한인회는 김모씨가 2016년 8월9일 출국하여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구조단(사단법인 월드케어)과 연계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한인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양영연 배상

###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 외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 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 대기)

## ■ 전화번호 안내

시 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 전화.....001,008

##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 공항 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801 Toll Road
교통사고.....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021)692 8515

##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과.....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b>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b>

##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터미널3).....021)8082 219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021)5721 381~3 (공항).....021)5591 3229

##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47
수도고장문의.....021)57986555

한국인 직원 구인 / 구직 적극 지원  
아래 주소로 이력서 송부 바랍니다

✓ **急**한데 .. 유능한 人材 어디서 찾나 ?

✓ **힘**드네 .. 쓸만한 사람 그렇게 없나 ?

✓ **費用** .. 들어도 좋은 직원 없을까 ?

Recruitment Service



OSSELN AJAYA

세르나자야

Korea Desk  
0878-8042-9794  
021-572-7214  
hwangyh@os-selnajaya.com  
www.os-selnajaya.com/en

domestic : Karawang, Cikarang, Bandung, Surabaya, Cibubur, Lembang, Jakarta : 19th fl. Mid Plaza II, Jl. Jend. Sudirman Kav 10-11 Jakarta, Indonesia  
overseas : Vietnam, Malaysia, Singapore, Cambodia, China, Japan, HK, India, Australia, Germany, Belgium, Poland, UK, Chile, Peru, Brazil, Colombia, Ecuador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관	2967	2580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	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골프장**

BOGOR RAYA	0251	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	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	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  
주거공간  
↓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om@gmail.com T: (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58	7650 6040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ICHTHUS SCHOOL**



**OPEN HOUSE**  
Saturday, 13 April 2019  
09.00pm - 12.00am

[www.ichthusschool.com](http://www.ichthusschool.com)

**PRIMARY | SECONDARY | PRE-UNIVERSITY**  
A Christian School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ur Campuses**

**South Campus:**  
Jl. Caringin Barat No.1 Cilandak Barat, South Jakarta 12430  
T: +6221 7590 8850

**West Campus:**  
Jl. Surya Mandala III Blok N II No. 11, Sunrise Garden West Jakarta 11520  
T: +6221 581 2228

**f** Ichthus Schools  
**▶** Ichthus School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58 76506040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



## 우리투어

Tel : 021-794-0422 / 021-7919-9201  
HP : 0811-1742-081  
Kataalk ID : uritour88  
Email : master@uritour.org



##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뵈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sup>th</sup>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Tel: (021) 4587 8833 Fax: (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형사 · 민사 · 세무 · 투자 · 국적

김종성(변호사/ 대표Partner): UI대 법대졸, UI대 법대 대학원졸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항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가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가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고주몽	7279 6709
	8984 1000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0 7530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가시 서울	8895 7604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마루노래방	027 2831 869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2018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 & 집행부>

박형동 회장/한바패 회장

채영애 감사

사공경 고문

강희중 자문

신돈철 자문

이수진 수석 부회장

허민경 사무국장/스트링 오케스트라

정방울 사무차장/한인무용단

김경애 전시 수석부회장/한지공예

이은수 전시부회장/미협

김혜정 공연 수석부회장/JKCC 어린이 합창단

정재익 전시부회장/서협

김영희 공연 수석부회장/아르떼 여성합창단

김일순 공연부회장/한바패

박의태 공연부회장/색소폰

박정욱 공연부회장/극동방송 합창단

손창진 공연부회장/아버지 앙상블

<17개 소속 단체장>

극동방송 합창단 단장: 신정일 0811 924 328

국악사랑 회장: 장방식 0811 902 003

루시 플라워 회장: 최정순 0811 834 026

문인협회 회장: 서미숙 0812 8178 050

미술협회 회장: 신돈철 0878 5480 4815

색소폰동호회 회장: 박의태 0811 876 547

서예협회장: 송판원 0816 1840 762

스트링오케스트라단장: 허민경 0812 1316 2064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채영애 0816 745 384

아버지앙상블단장: 변영극 0815 9101 898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안영수 0811 9005 639

월화차 회장: 이춘순 0878 8333 3359

음악협회 회장: 채영애 0816 745 384

한국무용단 단장: 정방울 0811 1636 210

한바패 회장: 박형동 0811 149 586

한지공예 단장: 김경애 0815 1941 1756

헤리티지코리아섹션 대표: 김상태, 김혜정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0254-848 4111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씨티서울	515 0415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유미	720 7464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아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파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복	3005 1650
요리가	4584 4502
본가 (족자카르타)	027 4436 1301
치맥 (족자카르타)	027 2831 440
<b>• 신문</b>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2930 6886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b>• 안경원</b>	
시티안경원	726 5009
<b>• 여행사</b>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라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18 4239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b>• 인니어통역/번역</b>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b>• 인터넷</b>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종교 단체

<b>&lt;기독교&gt;</b>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짜카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짜카랑 공소)	7884	3782	8911	7547
<b>&lt;불교&gt;</b>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동부자바포교원)	765	6036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b>&lt;이슬람&gt;</b>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북공하숙(리보짜카랑)	0813	1415	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 게스트하우스	0858	1442	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보짜카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썬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풀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1	888	9609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샌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라스	520	4181		
트라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

뱅크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보짜카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	--	--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박학천논술	4586 7844
에세드라아트스쿨(리브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 989 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골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인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수출·무역**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발리 (지역번호 0361)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퓨터 0821-2222-6000



2018 재인니 대한체육회

http://www.ksai.or.kr E-Mail: sports-ind@naver.com

구분	직책	성명	휴대폰
집행부	회장	강희중	0816-798-221
	사무총장	방진학	0811-198-282
	감사	배응식	0811-993-7651
	사무국장	최석일	0811-888-9609

협회	검도협회장	강희중	0816-798-221
	탁구협회장	곽봉규	0815-1410-4167
	볼링협회장	김송정	0816-716-293
	용무도협회장	김대화	0811-188-2938
	골프협회장	한현봉	0811-111-5800
	태권도협회장	방진학	0811-198-282
	축구협회장	전용무	08111-009-252
	테니스협회장	정영규	0821-1032-624
	야구협회장	이창균	0815-1443-0000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지역한인회 주소록

현재 2019. 1. 2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발리한인회	회장	윤 경 희	0811-385-841
		부회장	편 성 호	0812-389-0694
		총무	송 학 자	0812-362-3000
		총무	손 민 석	0858-5732-0669
2	반둥한인회	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오 명 근	0812-115-1004
		사무차장	남 상 일	0812-2400-0303
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수석부회장	주 정 만	0812-704-5030
		사무국장	정 규 철	0812-701-6090
		총무	이 상 구	0821-7356-8405
4	보고르한인회	회장	이 철 훈	0811-112-179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메단한인회	회장	홍 상 철	0811-160-8724
		총무	손 근 환	0812-655-9418
6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111-5208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7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회장	배 춘 식	0811-332-4001
		수석부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총장	김 태 현	0818-321-332
		수석총무	우 상 화	0817-500-1042
		총무	배 기 보	0812-3251-5518
8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회장	유 성 천	0812-2867-994
		수석부회장	임 종 학	0813-2525-7777
		사무총장	문 성 구	0811-275-080
		수석총무	양 재 삼	0812-9323-8002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배 석 기	0816-1844-165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0	즈파라한인회	회장	문 창 윤	0822-2220-8123
		수석총무	조 영 성	0813-9032-3355
		총무	양 세 환	0822-2719-9135
11	망그랑반뜰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18-660-732
12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	이 재 호	0811-444-190
		총무	한 정 곤	0811-419-200
13	롬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THEP

TRASINDO

SAMINDO

CEP

PSG



# SAMTAN

GLOBAL LEADING COMPANY  
IN RESOURCE & ENERGY

SBS

DONGHAE

SIMS

MINTEC

SRT

ABM

KIDECO